

#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종무행정 방향연구

김규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현안보고 2020-01

#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종무행정 방향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Religious Administration  
in Response to Social Change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연구책임

---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

---

성해영 서울대학교 교수

손유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종무행정 방향연구



## 연구개요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가. 연구 배경

- 현재 종교활동에 대한 분석과 조사, 연구가 미흡한 수준이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 개발과 계획수립도 어려운 상황임
  -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종교 인구는 국민 4,905만 명의 43.9%임
  - 종교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의 중요한 여가활동,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 전통문화체험, 관광/여행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있음. 이처럼 종교는 매우 복합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음
  - 종무행정 영역을 단순 종교활동 지원에 국한하지 않고, 조사연구 추진을 통해 관련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함
- 이와 더불어 미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종무정책 제시도 요구되고 있음
  - 코로나 19와 연관된 비대면 사회, 뉴노멀 사회, 4차 산업혁명, 나아가 저성장사회 등 과거 예견한 미래의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에 종무정책도 새로운 미래에 대비한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나. 연구 목적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행정의 중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향후 중장기적인 종무정책의 실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핵심과제 도출 및 단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종교 관련 사업을 제안함
  - 또한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를 고려한 종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 종교의 본연적 가치를 도출하여 정책 추진의 근거로 제시하고자 함
  - 종교의 본연적 가치, 사회에서의 종교 역할 및 가치 등의 사례 및 이론을 검토하여 위의 정책 추진의 근거로 제시하고자 함

## 2. 종교와 종교활동

### 가. 종교의 가치와 역할

- 종교는 삶의 의미와 궁극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며,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선언함. 또한 인간 창조성의 구현물로 문화의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임
  - 모든 종교는 삶의 실존적 위기에 대한 권위 있는 해답을 제시하기에 지혜 전통이라고 불림. 또한 인간이 존엄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선언하며, 이를 현실에서 구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함
  - 인간만이 종교를 갖는 유일한 존재라는 점에서 종교는 문화 현상 중에서도 인간의 독특성과 창조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분야임
- 종교는 개인의 삶의 의미 제공 및 행복구현, 공동체의 통합과 평화적 공존의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더불어 종교 문화의 변형은 공동체 문화 수준의 대표적인 지표로 볼 수 있음
  -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를 선언하고,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려는 종교의 가치가 사회에서 구현될 경우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 구현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불교의 보살 정신, 기독교의 사랑, 이슬람의 헌신과 봉사 정신 등은 다양성이 공존함으로써 문화융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다종교 사회인 한국은 우리 문화가 지닌 포용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 지표임

### 나. 대한민국 종교의 현황

- 2015년 총 인구 49,052천 명 중 종교 인구는 21,554천 명(43.9%)임<sup>1)</sup>
  - 종교 있음(43.9%) 중 기독교-개신교의 비율이 19.7%로 가장 높았으며, 불교(15.5%), 기독교-천주교(7.9%), 기타(0.3%), 원불교(0.2%), 유교(0.2%), 천도교(0.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1) 통계청(2015),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p.3

- 문화와 관련 하여 전통문화의 중심으로서 종교시설(사찰, 향교, 서원, 근대문화유산 등)의 가치와 역할이 큼
  - 종교별 국가지정등록문화재를 살펴보면 불교가 1,548개로 가장 많으며, 유교(97개), 천주교(55개), 개신교(35개), 단군신앙(3개) 등으로 나타남

#### 다. 국민 종교활동 실태

- 종교인의 사회참여 현황은 「2019년 사회조사보고서」,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나타남
  - 「2019년 사회조사보고서」에서 나타난 종교 관련 결과는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19세 이상)’ 문항에서 종교활동(5.9%), ‘참여하는 단체활동’의 문항에서는 종교단체(28.7%),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 문항의 주중 활동 문항은 동호회(종교단체 등)(4.1%), 주말의 경우 동호회(종교단체 등)(7.1%)와 같이 나타남
  -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는 가장 만족스러운 여가활동(개별) 문항에서는 종교활동이 여가활동 전체항목 88개 중 상위 1순위 기준, 일곱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3.8%), 동호회 활동(주된 활동)-동호회 활동자 대상 문항에서는 종교활동이 항목 88개 중 일곱 번째로 높게 나타남(3.5%).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 분야 및 활동 문항에서는 9.6%가 종교활동이라고 응답함

### 3. 종교와 사회 그리고 미래

#### 가. 한국사회의 갈등과 정신건강 실태

- 현재 한국사회는 개인 및 다양한 집단 간의 갈등을 겪고 있음.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은 보통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2016)」와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갈등지수와 갈등비용 추정(2018)」 연구에서도 한국의 사회갈등 지

수 점수 및 순위는 하위권에 해당함

- 사회갈등과 더불어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기존의 갈등과 사회적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극대화되고 이에 대한 반응도 구체적인 사회현상으로 나타남
  - 재난 및 안전 문제의 발생 이후 치료가 중요하지만 향후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정책이 더욱 중요함

## 나. 사회문제와 종교의 위상

- 사회적 문제의 확대에 비해 종교의 위상과 역할이 약해지고 있음
  -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사회단체 참여 정도를 묻는 조사에서 종교 단체는 13.8%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 간 갈등’은 1~4점 척도 중 2.6점으로 나타남
  - 기관별 신뢰 정도의 문항에서는 종교기관의 경우 믿지 않는다(①+②)가 58.3%로 믿는다(③+④) 41.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1순위)로 9개 기관 중 종교단체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아직도 전 국민의 절반이 종교가 있는 (43.9% 2015년) 현재, 종교의 사회적 역할 및 그에 대한 기대, 신뢰는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임
  - 20대, 30대가 종교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연령대로 나타나고 있어 미래에 있어서도 사회통합에 있어 종교기관의 역할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다. 미래의 사회변화와 종교

- 코로나19 이후 사회가 변화하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미디어 집중 현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종교활동자체의 변화가 불가피함
  - 가정 체류시간 증가, 지역 내 이동 감소 등에 의한 기존 내재된 갈등이 확대 가능성에 대한 종교의 역할이 필요함
- 현대와 코로나19에 의한 변화, 미래 트렌드와 종교의 영향력/역할 비교

- 사회적 변화, 코로나19에 의한 새로운 뉴노멀 시대와 향후 미래의 트렌드를 고려해볼 때 종교가 가진 강점으로는 종교의 보편적 가치의 역할이 여전히 주요한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정신적 기능, 영향력과 사회활동에 대한 역량 등을 들 수 있음
- 반면 종교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하락하며 나아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폐쇄적, 변하기 어려운 보수적인 부분에서의 약점이 존재함
- 현대사회의 새로운 갈등과 정신적,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점으로 기회요소로 볼 수 있으나, 새로운 변화에 오히려 반대되는 부분이 드러나는 점은 큰 위협이 될 수 있음

## 4. 종무 정책 변화 및 현황

### 가. 대한민국 종무 정책의 변화

- 종무행정 담당 부서는 1948년 문교부 문화국 교도과에서 시작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로 확대되었음
  - 종무정책은 탄압의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사회교육 및 통합정책, 종교지원 업무 등으로 변화해옴

### 나. 종무 행정관련 제도 및 기반

- 주요 법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향교재산법」 그리고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임
  - 이외 종무 업무 관련법에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종교 관련 제도로는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와 행정규칙이 있음
- 종교 및 종무 행정 중심 관련 법 및 조례 등과 별도로 종교와 관련된 법률은 다양하게 나타남
  - 종교와 관련된 법률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는 종교가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줌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한 종무행정 영역은 종교 관련 행정, 단체, 활동, 시설 등의 전반에 해당함
  - 종무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해 종무 1담당관과 2담당관으로 나누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종무 1담당관은 종무행정 계획·실행·개발 및 불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종무 2담당관은 기독교·천주교·유교·민족종교 등 불교 이외의 종교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음

#### 다. 현 종무관련 정책 사업

- 2020년 종무 주요 사업으로는 종교 문화활동 지원,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 종교문화시설 건립, 법난심의위원회 운영 등이 있음
  - 개별 종교지원 중심의 종무행정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확산이나 종교간 화합, 교류부분이 매우 적으며, 종무실 기본 업무가 ‘종교 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종교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종교 간 화합에 기여’ 인데 관련 예산은 2020년의 경우 5.6%에 불과함(종교의 사회통합 기능 강화)
  - 이외에 연합활동, 종교문화콘텐츠 개발관련 업무 (제한적) 등도 매우 미흡하며 각 종교별 지원이 중심임

#### 라. 종교 관련 정기적 조사 및 연구 실태

- 종교 관련 조사연구로는 2009 종무행정백서, 한국의 종교 현황(2008, 2011, 2018)이 있음
  - 종무행정백서는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9 종무행정백서’라는 제목으로 최초 발간되었음. 내용은 1장 일반현황, 2장 2009년 추진성과, 3장 종교 계 주요 활동, 4장 종무행정 업무편람, 그리고 부록으로 종교관련 법령, 세법규정, 각종 통계 등을 제시되어 있음
  - 한국의 종교현황조사는 종교계 개관, 교세현황, 법인현황 등과 세계의 종교현황과 국제종교기구 현황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 마. 종무관련 행정과 사업 분석

- 종합적인 중장기 종무 계획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에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종무행정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문제점과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종무행정은 지원 업무가 대부분이라는 평가가 다수임
  - 따라서 장기적 관점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바. 2021 종무 정책 및 사업 개선관련

- 신규 및 증액사업은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제시되었음
  - 기존 제기된, 조사, 연구에 대한 필요성 대응, 협력사업 확대, 코로나 19 치유 등 사회적 역할 확대, 문화유산 및 문화사업 연계 등 기존의 문제와 필요성을 반영하는 사업 신규개발 및 확대 등이 반영됨

## 사. 종무정책 성과 분석

- 종무정책의 SWOT 분석은 다음과 같음
  - 종무정책의 강점은 종교계와의 신뢰구축,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정신문화 통합 담당, 종교시설 및 공간 관련 경험, 노하우 축적임
  - 약점으로는 종무행정의 비전과 방향에 대한 고민이 미흡하고,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조직이 부재하다는 점이 있음
  - 기회요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종교 관련 정책수요가 발생했으며, 종교는 국가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문체부 정책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임
  - 위협요소로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종무행정 범위 제한, 갈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위험, 종교 간, 종교인 및 비종교인 간 오해요소가 다분하여 균형 잡힌 정책 어려움이 있음

## 5. 결론: 종무 정책 중장기 방향

### 가. 새로운 정책 방향 구상

- 방향 구상을 위한 전제
  - 포용국가와 문화안전망의 기반으로 종무정책 실현
  - 종교인이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 정책구조 지향. 지원과 협력의 정부역할 : 상생
  - 종교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종교간 협력 정책 중심의 방향: 공감
  - 문화유산, 문화콘텐츠, 문화거점, 문화다양성, 지역문화에서 종교 역할 적극 연계: 문화
- 비전 및 추진방향

비전	공감과 상생의 사람이 있는 문화 확산
----	----------------------

추진방향	종무행정을 통한 공감과 상생실현	종교가 지향하는 포용가치의 확대	다원주의에서 문화적가치로
------	-------------------	-------------------	---------------

주요과제	종무 행정 거버넌스 구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프레임 설정, 매개역할 조직 마련
	종교 간 평화적 공존	다종교사회로서의 장점 확대, 종교 간 이해 및 평화 공존 프로그램 확충
	종교적 가치를 일상에서 구현	종교의 가치를 일상에서 구현, 종교 분야 문화안전망, 포용 및 치유 프로그램 확충
	문화거점·콘텐츠로서 종교문화 적극 활용	종교적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콘텐츠 활용, 문화관광 요소 연계 콘텐츠 마련

환경변화	한국사회 내 개인 및 다양한 집단 간의 갈등 심화
	자살률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무기력증, 불안 장애 등의 정신건강 악화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한 4차산업혁명 가속화

- 과제별 핵심 추진내용
  - 과제별 핵심 추진 내용으로는 종무 행정 거버넌스 구축 및 기반마련, 종교 간 평화적 공감과 공존, 종교적 가치를 일상에서 구현, 문화거점·문화콘텐츠로서 종교문화 적극 활용, 종교 실태조사 및 종무행정 평가 정례적 추진, 종교 리터러시 및 접근성 강화 정책 등이 있음



## 나. 비전 연계 신규 과제(안) 도출

- 비전과 연계한 종교 관련 신규 과제로는 종무정책 제도 마련, 조사 연구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사업 ‘한국종교문화연구센터(가칭)’ 건립 추진, 문화 자원으로서의 종교적 콘텐츠 발굴 및 활용이 있음
  - 종무정책 제도 마련: 종교간 협의체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협의체 요건 반영, 법정종합계획 내용 설정, 계획수립·승인 및 시행 등
  - 조사 연구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사업: ‘종교문화생활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정례화 및 제도화, ‘한국종교문화연구센터(가칭)’ 건립 추진, 전통종교문화는 물론 근현대종교문화 사업도 개발
  - 문화 자원으로서의 종교적 콘텐츠 발굴 및 활용: 종교 평화 공원 조성 사업 추진, 종교 문화 체험 및 순례 관련 사업 개발 및 지원
- 이와 더불어 종교적 가치의 사회적 구현 사업, 종교의 평화적 공존 모델의 가치 발굴 및 확산, 종교 문화 활동 지원 방안, 종교 리더러시 확대 기반 마련 사업을 제시할 수 있음
  - 종교적 가치의 사회적 구현 사업: ‘종교와 삶의 지혜’ 프로그램 운영(대학생 대상), 한국의 종교 문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지원, 남북 종교계 교류 지원 등
  - 종교의 평화적 공존 모델의 가치 발굴 및 확산: ‘세계 종교 평화 축전’ 개최 및 한국의 평화적 종교 공존 사례 홍보, 세계 청소년 종교평화 대회 개최 등
  - 종교 문화 활동 지원 방안: 종교 기관 문화공간 지원방안, 종교 기관 주관 문화 프로그램 지원방안, 남북문화교류에서의 종교사업 확대 등
  - 종교 리더러시 확대 기반 마련: 종교 이해 및 접근성 강화 플랫폼 구축, 종교 라키비움 조성 및 운영, (종교를 넘어) 국민정신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치유, 통합 등 사업 개발·시행 및 캠페인 추진



---

# 목차

<b>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b>	<b>1</b>
제1절 연구 배경 .....	3
제2절 연구 목적 .....	5
<b>제2장 종교와 종교활동 .....</b>	<b>7</b>
제1절 종교의 가치와 역할 .....	9
1. 종교의 가치 .....	9
2. 종교의 역할 .....	10
제2절 대한민국 종교의 현황 .....	12
1. 종교 인구 .....	12
2. 한국의 종교 교단 및 종교의 활동 .....	16
3. 종교 관련 문화 활동 .....	19
4. 종교 관련 문화유산 .....	22
5. 종교 관련 미디어 .....	27
제3절 국민 종교활동 실태 .....	28
1. 종교인의 사회참여 현황 .....	28
2. 국민 여가활동에서의 종교 .....	30
<b>제3장 종교와 사회 그리고 미래 .....</b>	<b>35</b>
제1절 한국사회의 갈등과 정신건강 실태 .....	37
1. 사회 갈등 분석 및 요인 .....	37
2. 코로나19 이후 극대화된 사회갈등 .....	41
제2절 사회 문제와 종교의 위상 .....	44
1. 2019 사회통합실태조사(종교부분) 검토 .....	44
2. 사회에 대한 종교의 역할 및 기대 저하 .....	48

제3절 미래의 사회변화와 종교	49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 변화	49
2. 미래 사회 예측	54
3. 종교의 미래 SWOT 분석	56
<b>제4장 종무 정책 변화 및 현황</b>	<b>59</b>
제1절 대한민국 종무 정책 및 제도적 기반	61
1. 종무 정책의 변화	61
2. 종교 관련 주요 법	62
3. 종교 관련 제도 분석	63
4. 기타 종무 행정 관련 제도	65
5. 종무 행정의 영역	65
제2절 종무 정책사업 분석	67
1. 2020년 종무 정책 예산	67
2. 2020년 종무 주요사업 개요	69
3. 현재 종무 정책사업 분석	70
4. 종교 관련 정기적 조사 및 연구 실태	71
5. 종무 관련 행정과 사업 분석	72
6. 2021 종무 정책 및 사업 개선 관련	73
제3절 종무 정책 성과 분석	75
1. 종무 정책의 SWOT 분석	75
<b>제5장 결론: 종무 정책 중장기 방향</b>	<b>79</b>
제1절 새로운 정책 방향 구상	81
1. 방향 구상을 위한 전제	81
2. 비전 및 추진방향	81
3. 과제별 핵심 추진내용	82
제2절 비전 연계 신규 과제(안) 도출	85
1. 종무정책 제도 마련	85
2. 조사 연구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사업	85
3. 문화 자원으로서의 종교적 콘텐츠 발굴 및 활용	86
4. 종교적 가치의 사회적 구현 사업	87

5. 종교의 평화적 공존 모델의 가치 발굴 및 확산	88
6. 종교 문화 활동 지원 방안	90
7. 종교 리더러시 확대 기반 마련	91

## 참고문헌 / 93

## ABSTRACT / 95

## 부록 / 97

【부록1】「국민화합·치유자문위원회」 회의 (“새로운 종무정책 방향 연구안”) / 99

【부록2】 주요 사업 예산 추정 / 103

# 표 목차

〈표 2-1〉 한국의 종교 인구변화(1995-2015년)	13
〈표 2-2〉 성별 종교 인구(1995, 2005, 2015)	14
〈표 2-3〉 연령대별 종교 여부(2005, 2015)	15
〈표 2-4〉 종교유형별 인구(1995, 2005, 2015)	16
〈표 2-5〉 종교별 교단(종단) 현황표	17
〈표 2-6〉 종립학교 총괄표	18
〈표 2-7〉 종립 초·중등학교와 대안학교 현황	18
〈표 2-8〉 2019 사회조사 ‘기부 현황(복수응답)’ 결과표	19
〈표 2-9〉 종교관련 문화시설 현황	22
〈표 2-10〉 종교별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22
〈표 2-11〉 국가 지정 천주교 문화재(유적건조물) 목록	23
〈표 2-12〉 국가 지정 개신교 문화재(유적건조물) 목록	24
〈표 2-13〉 국가 지정 민족종교 문화재(유적건조물) 목록	24
〈표 2-14〉 시도별 전통사찰 현황	25
〈표 2-15〉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서울시미래유산 목록	26
〈표 2-16〉 2019 사회조사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19세 이상)’ 결과표	28
〈표 2-17〉 2019 사회조사 ‘단체 참여(복수응답)’ 결과표	29
〈표 2-18〉 2019 사회조사 ‘여가 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 결과표	30
〈표 2-19〉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종교활동 및 종교공간 항목 결과표	31
〈표 2-20〉 동호회 활동-동호회 활동자_상위10개	32
〈표 3-1〉 사회통합지수의 국가별, 연도별 현황	39
〈표 3-2〉 우리 사회 갈등 정도-종교 간	45
〈표 3-3〉 기관별 신뢰 정도-종교기관	46
〈표 3-4〉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1순위)	48
〈표 3-5〉 우리사회가 가야할 방향(분배/성장을 중요시하는 사회) 조사	53
〈표 3-6〉 우리사회가 가야할 방향(삶의 질/경제적 성취를 중요시하는 사회) 조사	53
〈표 4-1〉 문체부 종무행정관련 주요 법령	63

〈표 4-2〉 종교관련 조례 및 규칙	63
〈표 4-3〉 종교관련 예고 및 고시	64
〈표 4-4〉 종교 관련 법률 구분	65
〈표 4-5〉 종무실 종무 1담당관 및 종무 2담당관 주요 업무	66
〈표 4-6〉 문체부 종무실‘21년도 주요 증액 및 신규사업	73

---

## 그림 목차

[그림 2-1]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지 (종교 관련)	12
[그림 2-2] 한국의 종교 인구변화 그래프(1995-2015년)	13
[그림 2-3] 이용한 여가공간(개별) 상위 10개(복수응답)	32
[그림 2-4] 이용을 희망하는 여가공간(개별) 상위 10개(복수응답)	33
[그림 3-1] 사회갈등의 원인 인식 차이	38
[그림 3-2] 사회갈등지수 점수 및 순위	40
[그림 3-3] 코로나19 발생 후 각 시기별 감정변화	42
[그림 3-4] 한국 메르스 생존자들의 정신건강 상태	43
[그림 3-5] 사회단체 참여 정도 차이	44
[그림 3-6]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인식 연도별 추이	47
[그림 3-7]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일상생활의 변화 조사	50
[그림 3-8]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관련 인식조사	51
[그림 3-9] 코로나19 발생 이후 OTT 가입자 추이	52
[그림 3-10] 10년 후 한국에서 중요하다고 인식된 10대 이슈	55
[그림 5-1] 종무 거버넌스 구성(안)	82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종무행정 방향연구

## 제1장

# 연구 배경 및 목적



## 제1절 연구 배경

---

- 국가의 종교정책의 기본 원칙은 헌법에 선언되어 있음
  - 이는 ‘종교로 인한 차별금지’(제11조), ‘종교의 자유’(제20조), 그리고 ‘국교의 불인정 및 종교와 정치의 분리’(제20조)임
  - 이와 별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교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종무실은 종무실장, 종무담당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종교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종교지원, 기타 종교 차별금지 관련, 종교현황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는 종무실의 업무를 “종교 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종교 간 협력 및 연합활동 지원, 종교문화콘텐츠 개발, 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지원 등을 통해 종교 간 화합에 기여합니다.”라고 표명하고 있음<sup>1)</sup>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종교 영역은 국민의 43.9%의 삶과 관계를 맺고 있음
  -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종교 인구는 국민 4,905만 명의 43.9%인 2,155만 명으로 나타남. 종교 별로 살펴보면 불교 7,619천 명(15.5%), 개신교 9,676천 명(19.7%), 천주교 3,890천 명(7.9%), 원불교 84천 명(0.2%), 유교 76천 명(0.2%), 기타 208천 명(0.4%)으로 나타나고 있음

---

1)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종무실 소개(<https://www.mcst.go.kr/>)

- 종교활동은 국민의 중요한 여가활동,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 전통문화체험 등 다양한 문화체육관광부 영역과 관련되어 있음. 나아가 동호회와도 연계되어 있으며, 관광/여행의 영역에도 속하는 부분이 있는 매우 복합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종교활동에 대한 분석과 조사, 연구가 미흡한 수준이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 개발과 계획수립도 어려운 상황임
  - 종교활동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종교문화콘텐츠 개발’, ‘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지원’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종무행정 영역을 단순 종교활동 지원에 국한하지 않고 조사연구를 추진하여 관련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함
- 미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종무정책 제시가 요구됨
  - 기존의 정책 환경변화가 2020년에 들어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 코로나19와 연관된 비대면 사회, 뉴노멀 사회, 4차 산업혁명, 나아가 저성장사회 등 과거 예견한 미래의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이에 종무정책도 새로운 미래에 대비한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제2절 연구 목적

---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행정의 중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정기적인 조사연구, 제도적인 여건 마련 및 종합계획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여 향후 중장기적인 종무정책의 실행을 위한 방향을 도출함
  - 핵심과제 도출 및 단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종교 관련 사업을 제안함
  - 코로나19, 뉴노멀 사회, 4차 산업혁명 및 비대면 일상 등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를 고려한 종무 정책의 방향을 도출함
- 종교의 본연적 가치를 도출하여 정책 추진의 근거로 제시하고자 함
  - 종교의 본연적 가치, 사회에서의 종교 역할 및 가치 등의 사례 및 이론을 검토하여 위의 정책 추진의 근거로 제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도출된 가치는 종무행정의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임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종무행정 방향연구

## 제2장

# 종교와 종교활동





# 제1절 종교의 가치와 역할

---

## 1. 종교의 가치

- 종교는 삶의 의미와 궁극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함
  - 모든 종교는 존재와 죽음의 의미를 포함해 삶의 실존적 위기에 대한 권위 있는 해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지혜 전통이라고 불림
    - ※ 종교학자 휴스턴 스미스(Houston Smith): “세계 종교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지혜 전통”
  - 종교는 개인의 궁극적 관심에 대한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삶에 강력한 위안과 의미를 제공하는 순기능을 하게 됨
    - ※ 신학자 폴 틸리히(Paul Tillich): “종교는 궁극적 관심(Ultimate Concern)”
- 종교는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선언함
  - 모든 종교는 인간이 존엄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선언하며, 이를 현실에서 구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함
  - 종교의 인간 존중 정신은 공동체 구성원인 모든 인간들이 존중받으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문화의 다양성과 창조성의 기반으로 기능함
  - 특히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복지의 구현, 교육 수준의 향상 등 최근의 상황은 종교가 지향하는 인간의 본질적 가치가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
- 종교는 인간 창조성의 구현물로 문화의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임
  - 인간만이 종교를 갖는 유일한 존재라는 점에서 종교는 문화 현상 중에서도 인간의 독특성과 창조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분야임

- 경전, 종교 상징, 종교 사상, 종교 건축물, 종교 예술 등 종교는 인간의 문화적 창조 능력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문화유산임
- 신, 초월적 세계, 궁극적 실재, 보이지 않는 차원에 대한 개념을 근간으로 하는 종교는 인간의 문화 창조의 특성을 잘 구현하고 있음

## 2. 종교의 역할

- 개인의 삶의 의미를 제공하고 행복을 구현함
  -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를 선언하고,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려는 종교의 가치가 사회에서 구현될 경우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 구현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특히 다양한 종교 공동체의 활동은 개인의 행복을 실현시키는 매우 중요한 통로로 기능함
  - 종교 전통이 발전시킨 명상 수행, 기도 등은 인간에게 자신의 내면에서 삶의 위기를 이기고, 행복을 구현할 수 있는 중심을 발견하게 도와줌
- 공동체의 통합과 평화적 공존의 기반을 제공함
  - 종교적 가치의 구현은 계층, 인종, 남녀 등 이질적인 집단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소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불교의 보살 정신, 기독교의 사랑, 이슬람의 헌신과 봉사 정신 등은 다양성이 공존함으로써 문화융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 또한 종교가 강조하는 보편적 가치는 정치적 갈등을 포함해 민족과 국가를 상생하게 만드는 기반이 됨
- 종교 문화의 번영은 공동체 문화 수준의 대표적인 지표임
  - 다양한 종교문화의 융성은 가장 대표적인 창조적 문화 활동의 지표임
  - 종교 사상, 종교 건축, 종교 예술, 종교적 문학 등은 인간 속에 내재한 창조적 정신을 구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보이지 않는 차원과 물질세계를 연결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다양한 문화 창조 결과물로 나타남

- 이집트를 비롯해 인류의 위대한 문명의 핵심에 찬란한 종교문화유산이 자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와 고려시대의 불교, 조선시대의 유교, 근현대 한국의 다종교 상황은 문화 융성의 단적인 사례임
  -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다종교 사회인 한국은 우리 문화가 지닌 포용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 지표임
- 한국의 종교 다원주의 가치
- 대한민국은 동서양의 다양한 종교 전통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종교의 여러 가지 가치가 명실상부하게 구현되어 온 공간임
  - 다양한 종교의 평화적 공존은 곧 인간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점에서 문화적 다원주의의 징표로 해석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종교 다원주의는 종교간 갈등과 긴장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자 해답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큰 통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음

## 제2절 대한민국 종교의 현황

### □ 통계자료

- 기존에 조사된 종교 관련 통계 자료에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한국의 종교현황’이 있음
  - 인구주택총조사는 종교 인구 및 성별, 종교유형별 인구 조사를 포함하고 있음
  - 한국의 종교현황은 전반적인 국내 종교 관련 현황을 다룸
  - 이와 더불어 문화재청의 종교별 국가지정·등록문화재와 서울시의 서울미래유산 목록을 통해 종교 관련 문화유산 현황을 알 수 있음

### 1. 종교 인구<sup>2)</sup>

-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10년 단위로 ‘전 국민대상 성별/연령별/종교별 인구-사군구’가 조사되며, 12개 항목으로 조사됨

[그림 2-1]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지 (종교 관련)

종 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6 종교가 있습니까?</b>                      • 「9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 구체적인 종교명을 기입합니다.  <div style="margin-top: 5px;"> <input type="checkbox"/> 있음                          → 종교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① 불교 ② 기독교(개신교) ③ 기독교(천주교) ④ 원불교 ⑤ 유교                         </div> <div>                             ⑥ 천도교 ⑦ 대순진리회 ⑧ 대종교 ⑨ 기타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80px; height: 20px; vertical-align: middle;"></span> </div> </div> <div style="margin-top: 5px;"> <input type="checkbox"/> 없음                         </div> </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6 종교가 있습니까?</b>                      • 「9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 구체적인 종교명을 기입합니다.  <div style="margin-top: 5px;"> <input type="checkbox"/> 있음                          → 종교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① 불교 ② 기독교(개신교) ③ 기독교(천주교) ④ 원불교 ⑤ 유교                         </div> <div>                             ⑥ 천도교 ⑦ 대순진리회 ⑧ 대종교 ⑨ 기타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80px; height: 20px; vertical-align: middle;"></span> </div> </div> <div style="margin-top: 5px;"> <input type="checkbox"/> 없음                         </div> </div> </div>
--------	--	--

자료: 통계청(2015), 「2015 인구주택총조사」

2) 통계청(1995, 2005, 2015), 「인구주택총조사」

- 1995년 50.4%(22,100천 명), 2005년 52.9%(24,526천 명), 2015년 43.9%(21,554천 명)가 종교가 있다고 응답함
  - 10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1995년 총 인구 43,834천 명 중 종교 인구는 22,100천 명으로 50.4%가 종교가 있다고 응답함. 2005년 총 인구 46,352천 명 중 종교 인구는 24,526천 명으로 52.9%를 차지했으며, 2015년 총 인구 49,052천 명 중 종교 인구는 21,554천 명으로 43.9%를 차지함

〈표 2-1〉 한국의 종교 인구변화(1995-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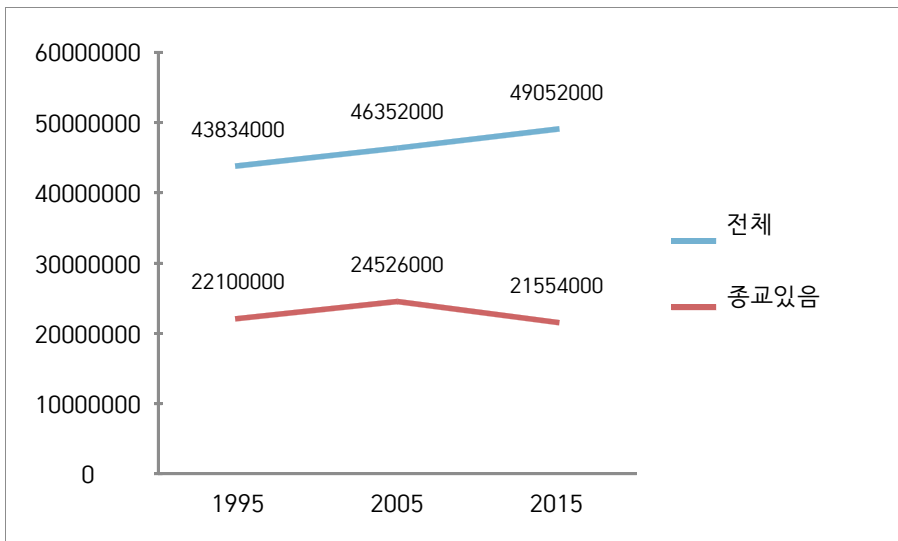
(단위: 천명, %)

	전체	종교있음
1995	43,834	22,100(50.4)
2005	46,352	24,526(52.9)
2015	49,052	21,554(43.9)

자료: 통계청(2015), 「2015 인구주택총조사」, p.17

주) 특별조사구 제외

[그림 2-3] 한국의 종교 인구변화 그래프(1995-2015년)



- 성별 종교 인구를 살펴보면 종교 있음에 응답한 응답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남
  - 1995년에는 종교 있음 응답자 중 46.6%가 남성이었으며 54.2%가 여성이었음
  - 2005년에는 남성 49.3%, 여성 56.4%, 2015년에는 남성 39.4%, 여성 48.4%로 나타남

〈표 2-2〉 성별 종교 인구(1995, 2005, 2015)

(단위: 천명, %)

연도	성별	인구수			구성비		
		계	있음	없음	계	있음	없음
1995년	계	43,834	22,100	21,735	100.0	50.4	49.6
	남자	21,644	10,080	11,564	100.0	46.6	53.4
	여자	22,190	12,020	10,171	100.0	54.2	45.8
2005년	계	46,352	24,526	21,826	100.0	52.9	47.1
	남자	22,785	11,226	11,559	100.0	49.3	50.7
	여자	23,567	13,300	10,267	100.0	56.4	43.6
2015년	계	49,052	21,554	27,499	100.0	43.9	56.1
	남자	24,207	9,533	14,674	100.0	39.4	60.6
	여자	24,846	12,020	12,825	100.0	48.4	51.6

자료: 통계청(2016), 「2015 인구주택총조사」, p.15

주) 특별조사구 제외

- 연령별 현황을 보면 종교인구 비율 감소는 40대(13.3%p)가 가장 크고, 다음이 20대(12.8%p), 10대(12.5%p) 등의 순임
  - 연령별 종교 없는 인구비율은 20대가 64.9%로 가장 높고, 다음이 10대(62.0%) 순임
  - 종교가 있는 인구비율은 20대에서 35.1%로 가장 낮고, 이후 연령이 증가하면서 같이 증가하여 70대에는 58.2%가 종교를 가지고 있음
  - 2005년과 비교하여, 종교 인구 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연령은 40대로 13.3%p 감소하였고, 다음이 20대(12.8%p), 10대(12.5%p) 순으로 감소하였음
  - 전체적으로 젊은 층과 10대의 감소가 높고, 젊은 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4~50대의 감소가 늘고 있음. 이는 향후 종교의 역할과 영향력 등에서 미래가 밝지 않음을 전망하게 함

〈표 2-3〉 연령대별 종교 여부(2005, 2015)

(단위: %, %p)

연령	2005년		2015년		증감 (B-A)
	없음(A)	있음	없음(B)	있음	
계	47.1	52.9	56.1	43.9	9.0
10~19세	49.5	50.5	62.0	38.0	12.5
20~29세	52.1	47.9	64.9	35.1	12.8
30~39세	52.1	47.9	61.6	38.4	9.5
40~49세	43.5	56.5	56.8	43.2	13.3
50~59세	37.4	62.6	49.3	50.7	11.9
60~69세	36.7	63.3	42.3	57.7	5.6
70세이상	37.0	63.0	41.8	58.2	4.8

자료: 통계청(2016),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p.16

주) 특별조사구 제외

- 종교 유형별 인구를 보면 1995년과 2005년에는 불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15년에는 기독교(개신교)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1995년에는 종교있음(50.4%) 중 불교의 비율이 23.2%로 가장 높았으며 기독교-개신교(19.4%), 기독교-천주교(6.6%), 유교(0.5%), 원불교(0.2%), 천도교(0.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05년에도 종교 있음(52.9%) 중 불교의 비율이 2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독교-개신교(18.2%), 기독교-천주교(10.8%), 기타(0.4%), 원불교(0.3%), 유교(0.2%), 천도교(0.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15년에는 종교 있음(43.9%) 중 기독교-개신교의 비율이 19.7%로 가장 높았으며, 불교(15.5%), 기독교-천주교(7.9%), 기타(0.3%), 원불교(0.2%), 유교(0.2%), 천도교(0.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2-4〉 종교유형별 인구(1995, 2005, 2015)

(단위: 천명, %)

구분	인구			구성비		
	1995년	2005년	2015년	1995년	2005년	2015년
계	43,834	46,352	49,052	100.0	100.0	100.0
종교있음	22,100	24,526	21,554	50.4	52.9	43.9
불교	10,154	10,588	7,619	23.2	22.8	15.5
기독교(개신교)	8,505	8,446	9,676	19.4	18.2	19.7
기독교(천주교)	2,885	5,015	3,890	6.6	10.8	7.9
원불교	86	129	84	0.2	0.3	0.2
유교	210	104	76	0.5	0.2	0.2
천도교	28	45	66	0.1	0.1	0.1
대종교	7	4	3	0.0	0.0	0.0
기타	225	196	139	0.5	0.4	0.3
종교없음	21,735	21,826	27,499	49.6	47.1	56.1

자료: 통계청(2016),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p.17

주) 특별조사구 제외

## 2. 한국의 종교 교단 및 종교의 활동

### ■ 종교별 교단(종단) 현황<sup>3)</sup>

- 「2018 한국의 종교현황」 조사 시 종교별 교단(종단) 현황을 정리하기 위하여 먼저 종교별종교단체와 종교연합단체들의 목록을 작성한 다음에 종교단체 및 종교연합단체의 특성에 맞추어 자료 협조를 요청하는 양식을 만들었음
- 이후 종교별 개별 종교 단체와 종교연합단체를 구분해 우편, 방문,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조사하였음. 이를 통해 각 단체가 응답한 공식적인 자료로서 조사해서 정리한 목록은 불교 482건, 개신교 374건, 천주교 1건, 원불교 1건, 유교 1건, 천도교 1건, 한국민족종교협의회(약칭 민종협) 10건, 기타 57건 등 모두 927건으로 나타남. 이 가운데 종교 현황 조사에 응한 사례 수는 모두 297건임

3)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한국의 종교현황」, p.98



- 기타의 경우 삼천도, 선교, 영생교, 재)세계정교, 이슬람교, 중화기독교한성교회, 참예수교회, 천리교, 천불교, 한국 SGI, 한국광명사상 보급회임
- 이외 미확인으로 46개의 경우 국제도덕협회, 달마불교회, 동방선도, 말일성도, 무량천도, 정심회, 진여원, 용화대미륵선도, 한얼교, 행복회, 아마기시회 등이 있음

〈표 2-5〉 종교별 교단(종단) 현황표

구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중협	기타	소계
확인 (협조)	146	126	1	1	1	1	10	11	297
미확인	336	248						46	630
계	482	374	1	1	1	1	10	57	92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한국의 종교현황」, p.98

#### ■ 종교별 법인 현황

- 2018년 문체부 조사에서 종교계 사단·재단법인 목록은 총 1,181개로 조사되었음
- 불교 353개 (재단법인110, 사단법인243), 개신교 633개(재단법인 196, 사단법인 437), 천주교 118개(재단법인 95, 사단 법인23), 유교 38개(재단법인 17, 사단법인 21), 기타 종교 39개(재단법인 25, 사단법인 14) 등임. 기타 종교 범위에는 종교연합단체, 자생 신종교, 외래 종교(이슬람, 정교회 등) 등을 포함시켰음

#### ■ 종립학교 현황

- 2018년 종교현황조사에 나타난 종립학교는 대학의 경우 145개이며, 초·중등학교와 대안학교(학력미인정 대안학교 포함)는 851개임
- 대학은 개신교가 109개로 가장 많았으며, 천주교(15개), 불교(10개), 그 밖의 종교(6개), 원불교(5개)로 나타남
- 초·중등학교 또한 개신교가 631개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종교(109개), 천주교(81개), 불교(30개)임

〈표 2-6〉 종립학교 총괄표

구분 시도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그밖의 종교	계
일반대학	5	61	14	2	4	86
대학원대학교 (=전문대학원)	3	23		1	1	28
전문대학 (종교계)	-	23	1	1	1	26
원격대학교	2			1		3
각종학교	-	2	-			2
계	10	109	15	5	6	14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한국의 종교현황」, p.194

〈표 2-7〉 종립 초·중등학교와 대안학교 현황

구분 시도별	천주교	개신교	불교	기타종교	계
초등학교	7	29	1	1	38
초중등학교		1			1
중학교	30	133	15	88	266
중고등학교		2			2
고등학교	39	196	13	20	268
소계	76	361	29	109	575
학력미인정 대안학교	5	270	1		276
총계	81	631	30	109	85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한국의 종교현황」, p.198

#### ■ 종교관련 사회 활동

- 종교단체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활동은 ‘기부’임
- 사회조사보고서(2019)에서 현금기부횟수는 모금단체(8.0회) 다음으로 종교 단체 (7.6회) 높으며, 2017년에 직장(기업)보다 낮은 순위였는데 두 번째 순위로 상승하였음
- 현금 기부 경로는 모금단체(56%), 종교단체(28.5%, 대상자에게 직접(17%), 직장(기업)(13.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2017년과 동일하게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표 2-8〉 2019 사회조사 ‘기부 현황(복수응답)’ 결과표

(단위: %, 회, 천원)

	계	기부 경로						1인당 평균 기부 금액	물품 기부
		모금단체	종교단체	대상자에게 직접	직장(기업)	언론기관	기타		
2017년	24.3(8.7)	61.0(8.1)	20.9(7.0)	15.3(7.0)	11.3(7.3)	4.6(6.0)	2.4(4.7)	378	6.2(2.9)
2019년	24.0(9.2)	56.0(8.0)	28.5(7.6)	17.0(7.0)	13.6(6.9)	5.9(5.6)	0.8(4.5)	406	4.4(2.9)

자료: 통계청(2019) 「2019년 사회조사결과」, p.23

주) ( ) 안의 수치는 기부 횟수임

- 기부 외에도 종교단체는 언론, 학교(종립학교), 연구소, 요양 및 의료기관, 사회복지사업 등 민간차원에서의 직접 사회참여활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간접적으로 군(군종), 교정시설(교정위원) 등의 활동을 통해 종교의 가치를 사회가 요구하는 부분에서 실천하고 있음

### 3. 종교 관련 문화 활동

- 문화와 관련 하여 전통문화의 중심으로서 종교시설(사찰, 향교, 서원, 근대문화유산 등)의 가치와 역할이 큼
  - 전통문화의 중심으로서 가치와 더불어 종교 관련 축일, 축제, 국제교류 등의 역할이 있음
  - 나아가 생활문화, 동아리활동, 문화예술활동의 중심으로서 종교단체의 역할이 매우 큼
  - 예를 들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악기 중심지 낙원상가도 인디음악, 밴드와 함께 종교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

#### 낙원악기상가 문형만 장로 “낙원동과 한국교회 음악은 운명공동체”<sup>4)</sup>

지하철 종로3가역에 내려 낙원동으로 들어가다 보면 마치 세월이 정지된 듯 한 추억의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낙원악기상가. 1969년 완공돼 악기상점들이 입주했고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하나의 타운을 형성했다. 명실상부 아시아 최대 악기전문상가로 명성을 날렸다. 지금은 경기불황과 온라인 판매 확대로 침체기라는 걱정이 들리지만 서울시의 관광정책에 의해 또다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 그런 이곳 3층에 터줏대감 대림음향이 자리 잡고 있다. 교회 음향을 전문으로 맡고 있어 웬만한 교회들은 한번쯤 다 거쳐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중략...

그는 또 “낙원악기상가의 주요 고객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 기독 청년들이다. 찬양사역이 번창했을 때 낙원악기상가도 번창했고 찬양사역이 쇠퇴할 때 같이 쇠퇴를 맞았다. 운명공동체다. 또 교회 사역의 조력자”라고 평가했다.

자료: 굿뉴스(2014.10.16.) “낙원악기상가 문형만 장로 ‘낙원동과 한국교회 음악은 운명 공동체’”

- 지리산 화엄사에서 개최되는 ‘화엄음악제’의 경우 불교에서 더 나아가 영상 음악의 중요한 축제로 자리 잡고 있음. 이는 종교가 문화예술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 화엄음악제

음악을 매개로 하는 예술적 제의를 통해 의식을 전환하는 국내 유일의 영성 음악 축제인 화엄음악제가 2019년 9월 27일(금)부터 29일(일)까지 전라남도 구례군 화엄사에서 펼쳐진다. 종교와 이념을 뛰어넘어 예술로부터 추구하는 영성을 통해 대중과 정신적 교감을 나누는 화엄음악제는 천년고찰인 화엄사와 지리산의 자연을 배경으로 독창적인 무대연출과 고유한 정서로 타 음악축제와는 차별화 된 특별함을 지니고 있다.



자료: <https://joyfesta.kr/FestivalDetail.festa?festivalseq=1640> 홈페이지

4) 굿뉴스(2014.10.16.) “낙원악기상가 문형만 장로 ‘낙원동과 한국교회 음악은 운명 공동체’”

- 영화와 관련해서는 카톨릭 영화제 (caff: catholic film festival)가 개최되고 있으며 특히 ‘보편적인 가치 안에서 영성적인 의미를 찾아본다’는 목적으로 종교의 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의 사례로 들 수 있음

### 카톨릭 영화제 (caff)

가톨릭영화제는 두 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천주교 신자들을 비롯한 평범한 시민들, 중고등학생들, 소외계층을 위한 영화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고, 연기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영화제 작위크숍과 영화연기워크숍 교육을 진행하는 CaFF영화아카데미는 매년 상반기에 시행되며, 여기에서 만들어진 수료작품들은 영화제 기간 메이드 인 가톨릭 섹션에서 상영되며, 순화상영전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이나 해외 한인들에게 상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밖에서 안으로: 보편적인 가치 안에서 영성적인 의미를 함께 찾아보기 위해서 매년 영화제 주제에 대한 단편영화공모를 실시합니다.

가톨릭영화제는 “가난한 영화제”를 표방하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화려함 보다는 따뜻함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영화제 취지에 맞춰 입장료는 무료(자율기부금제)로 운영되며, 이렇게 마련된 자율기부금은 찾아가는 영화제를 위한 비용과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영화교육을 위한 교육비로 전액 사용됩니다.



자료: 가톨릭영화제 홈페이지([https://www.caff.kr/?page\\_id=53](https://www.caff.kr/?page_id=53))

- 종교관련 문화시설에는 박물관·전시관·역사관, 기념관·미술관 등이 있으며, 종합대학에서도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음
  - 박물관·전시관·역사관의 경우 총 139개이며 그 중 불교가 62개로 가장 많음
  - 기념관·미술관은 개신교 20개, 불교 6개, 천주교 3개로 총 29개임

〈표 2-9〉 종교관련 문화시설 현황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그 밖의 종교	종립 대학	계
박물관·전시관·역사관	62	25	11	5	7	29	139
기념관·미술관	6	20	3	0	0	0	29
계	68	45	14	5	7	29	16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 한국의 종교현황」, p.275

## 4. 종교 관련 문화유산

- 종교별 국가지정·등록문화재를 살펴보면 불교가 1,548개로 가장 많으며, 유교(97개), 천주교(55개), 개신교(35개), 단군신앙(3개) 등으로 나타남

〈표 2-10〉 종교별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구분	총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국가 무형 문화재	국가 민속 문화재	등록 문화재
합계	4,906	342	2,188	513	113	461	146	300	843
불교	1,548	179	1,276	25	3	19	10	2	34
유교	97	6	55	23	0	0	4	4	5
천주교	55	0	0	8	0	0	0	0	47
개신교	35	0	0	2	0	0	0	0	33
단군 신앙	3	0	0	1	0	0	0	1	1
기타 (비종교 포함)	3,168	157	857	454	110	442	132	293	723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kr, 검색일자: 2020.10.13.)

- 국가 지정 종교 관련 유적건조물 문화재를 살펴보면 불교 문화재가 1,358개로 가장 많게 나타남
  - 문화재청의 국가문화유산포털에서 유적건조물-종교신앙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천주교 39개, 개신교 15개, 민족종교 6개로 나타남

〈표 2-11〉 국가 지정 천주교 문화재(유적건조물) 목록

연번	종목	명칭	소재지
1	사적 제252호	서울 약현성당	서울 중구 종림동 149-2
2	사적 제258호	서울 명동성당	서울 중구 명동2가 1-8
3	사적 제287호	인천 답동성당	인천 중구 우현로 50번길 2(답동)
4	사적 제288호	전주 전동성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전동)
5	사적 제290호	대구 계산동성당	대구 중구 서성로 20(계산동 2가)
6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전북 익산시 망성면 나바위 1길 146
7	사적 제521호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서울 용산구 원효로 4가
8	대구 유형문화재 제29호	성모당	대구 중구 남산로 4길 112(남산동)
9	인천 유형문화재 제41호	강화 온수리 성공회사제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5-11
10	대구 유형문화재 제43호	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성당	대구 중구 남산로 4길 111
11	인천 유형문화재 제51호	내동 성공회성당	인천광역시 중구 개항로45번길 21-32
12	인천 유형문화재 제52호	강화 온수리 성공회성당	인천광역시 강화군 온수길38번길 14
13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9호	횡성풍수원천주교회	강원 횡성군 서원면 경강로유현1길 30
14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6호	원주용소막성당	강원 원주시 신림면 구학산로 1857
15	충북 유형문화재 제188호	음성 감곡성당	충북 음성군 감곡면 성당길 10
16	경북 유형문화재 제348호	칠곡 가실성당	경상북도 칠곡군 가실1길 1
17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25호	광주북동천주교회	광주 북구 금재로 76
18	경기도 기념물 제25호	안성구포동성당	경기 안성시 해산로 33
19	충북 기념물 제118호	제천 배론성지	충청북도 제천시 배론성지길 296
20	전북 기념물 제119호	되재성당지	전북 완주군 화산면 승치리 729-1번지
21	충남 기념물 제142호	공주중동성당	충남 공주시 성당길 6
22	충남 기념물 제143호	부여금사리성당	충남 부여군 구룡면 성충로1342번길 21
23	충남 기념물 제144호	아산공세리성당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성당길 10
24	충남 기념물 제145호	당진합덕성당	충남 당진군 합덕읍 275번지
25	충남 기념물 제150호	진천 배티 성지	충청북도 진천군 배티로 708
26	충남 기념물 제164호	예산성당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64번지
27	충남 기념물 제175호	천안 성거산 천주교 교우촌터	천안 동남구 북면 남안리 산46-1외 2
28	경기도 기념물 176호	하우현성당사제관	경기도 의왕시 원터아랫길 81-6
29	충남 기념물 제176호	당진신리다불위주교유적지	충청남도 당진시 신리1길 44
30	충남 기념물 제177호	예산여사울이존창생가터	충남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 105-3외 2필지
31	대구 문화재자료 제24호	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코미넛관	대구 중구 남산로4길 111
32	대구 문화재자료 제45호	거룩한말씀의수녀회성당	대전 중구 목동 96-27번지
33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9호	의정부2동성당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265번길 27
34	전북 문화재자료 제178호	전동성당사제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
35	전북 문화재자료 제180호	천주교신성공소	전북 정읍시 신성길 176-1

연번	종목	명칭	소재지
36	경남 문화재자료 제283호	창원 성요셉 성당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남로 20
37	경북 문화재자료 제520호	상주 퇴강성당	경상북도 상주시 퇴강물미길 8
38	경남 문화재자료 제526호	밀양 명례성당	경상남도 밀양시 명례안길 44-3 (하남읍)
39	국가등록문화재 제784호	세종 부강성당	세종특별자치시 부강4길 33 (부강면)

자료: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표 2-12〉 국가 지정 개신교 문화재(유적건조물) 목록

연번	종목	명칭	소재지
1	사적 제256호	서울 정동교회	서울 중구 정동 32-2번지
2	사적 제424호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길 22
3	대구 유형문화재 제24호	선교사스윗즈주택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29
4	대구 유형문화재 제25호	선교사채니스주택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29
5	대구 유형문화재 제26호	선교사블레어주택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29
6	광주 유형문화재 제26호	오웬기념각	광주 남구 백서로70번길 6
7	대구 유형문화재 제30호	대구제일교회	대구 중구 남성로 23
8	서울 유형문화재 제35호	성공회 서울성당	서울 중구 세종대로21길 15
9	서울 유형문화재 제130호	승동교회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7-1
10	충북 유형문화재 제133호	청주 탑동 양관	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동로32번길 17-6
11	광주 기념물 제15호	우일선선교사사택	광주 남구 제중로47번길 20
12	인천 문화재자료 제14호	강화 서도 중앙교회	인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718번지
13	대전 문화재자료 제44호	오정동선교사촌	대전 대덕구 오정동 133-23번지
14	전북 문화재자료 제136호	금산교회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290-1번지
15	전북 문화재자료 제179호	두동교회구본당	전북 익산시 성당면 두동길 17-1

자료: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표 2-13〉 국가 지정 민족종교 문화재(유적건조물) 목록

연번	종목	명칭	소재지
1	대전 유형문화재 제28호	수운교도술천	대전 유성구 추목동 산40번지
2	서울 유형문화재 제36호	천도교 중앙대교당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7
3	강원도 기념물 제89호	인제 동경대전 간행터	강원도 인제군 남면 갑둔리 351
4	전라북도 기념물 제129호	고창 무장동학농민혁명 기포지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90
5	전남 기념물 제218호	천도교장흥교당	전남 장흥군 장흥읍 충열교촌길 35, 26
6	경북 민속문화재 제120호	상주 동학교당	경상북도 상주시 우기1길 64

자료: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 불교 유적건조물 문화재 중 불교사찰은 총 총 967개로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187개로 가장 많으며, 대전광역시도 가장 적음



〈표 2-14〉 시도별 전통사찰 현황

(단위: 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제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60	34	8	6	18	5	11	8	12	104	48	84	74	108	96	178	103

\* 2018년 12월 31일 기준

- 국가 지정 종교 관련 유물은 기타종교회화, 불교조각, 기타종교 공예, 불교회화, 기타종교·조각, 불교공예로 나누고 있음<sup>5)</sup>
  - 기타종교회화: 유교회화(2개), 무속화(8개),
  - 불교조각: 석조(708개), 금속조(124개), 목조(366개), 건칠조(14개), 소조(36개)
  - 기타종교 공예: 유교공예(15개)
  - 불교회화: 괘불화(63개), 탕화(571개), 판화(1개), 사경화(7개), 벽화(16개)
  - 기타종교: 유교조각(11개), 민간신앙조각(64개)
  - 불교공예: 의식법구(127개), 공양구(29개), 장엄구(18개), 사리장치(13개), 복장품(10개), 기타(45개)
- 국가 지정 종교 관련 무형문화재에는 종교의례 유형이 있으며, 10개의 의례가 등록되어 있음
  - 국가무형문화재 영산재, 삼화사 수륙재, 불복장작법 등과 더불어 광주(광주 영산재), 강원도(월정사 탑돌이), 경상남도(불모산영산재, 밀양 작약산 예수재), 서울시(생전예수재)의 무형문화재가 등록되어 있음

## ※ 서울미래유산

- 서울시는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보전하고자 함
  - 서울미래유산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서울의 근현대 문화유산 중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sup>6)</sup>을 지칭함
- 470개의 서울미래유산 중 25개의 유산이 종교시설에 해당함. 구체적 목록은 〈표 2-15〉와 같이 나타남

5) 문화재청 국가무형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6) 서울미래유산 홈페이지(<http://futureheritage.seoul.go.kr>)

- 25개의 종교시설 중 기독교-개신교 유산은 15개, 기독교-천주교 유산은 5개, 불교 유산은 2개, 통일교 2개, 정교회 1개로 이루어져 있음

〈표 2-15〉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서울시미래유산 목록

유형	대상	건립시기	소재지	건립용도	선정연도
문화예술	기독교방송국 (현 기독교서회 건물)	1954년	종로구 종로 68	교육연구시설, 점포, 사무실	2013
정치역사	길상사(구 대원각)	1997년	성북구 선잠로5길 68	종교시설	2013
도시관리	남대문교회	1969년	중구 퇴계로 6	교회	2013
도시관리	도림동 성당	1963년	영등포구 도영로 22길 22	성당	2013
도시관리	돈암동 성당	1955년	성북구 인촌로7길 120	종교시설	2013
도시관리	동신교회	1970년 (1956년)	종로구 종로44길 43	종교시설(교회)	2014
도시관리	불광동 성당	1986년 (1985년)	은평구 통일로 786	종교시설	2013
정치역사	상동교회 (구 새로나백화점)	1977년	중구 남대문로 30	백화점, 교회	2013
도시관리	서울침례교회	1954년	중구 서애로 3	교회당	2013
도시관리	석교교회	1916년	서대문구 독립문로 35	교회	2013
정치역사	영등포산업선교회 ·성문밖교회	1979년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3길 24	종교시설	2013
도시관리	영락교회 본당	1955년 (1949년)	중구 수표로 33	교회	2013
정치역사	오장동 서울제일교회	1978년	중구 마른내로 120	사무실, 교회, 근린생활시설	2013
도시관리	용산제일교회 교회동	-	-	-	2019
도시관리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 한국관구	1965년	중구 정동길 9	종교시설	2013
도시관리	제기동 성당	1957년	동대문구 약령시로 31	종교시설	2013
정치역사	중화기독교 한성교회	1960년	중구 정동길 8	종교시설	2013
도시관리	체부동 성결교회	1931년	종로구 자하문로1나길 3-2	종교시설	2014
도시관리	통일교 구 본부교회	1955년	용산구 청파로 47나길 83	교회당	2013
도시관리	통일교 전 본부교회	1977년	-	-	2019
도시관리	평안교회	1975년 (1967년)	중구 서소문로 89-11	교회	2017

유형	대상	건립시기	소재지	건립용도	선정연도
도시관리	하늘가죽교회 구 예배당	1958년	마포구 독막로28길 46	종교시설	2017
정치역사	한국기독교회관	1969년	종로구 대학로 19	근린생활시설	2013
도시관리	한국정교회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1968년	마포구 마포대로18길 43	문화및집회시설	2013
도시관리	화계사 대방	1866년	강북구 화계사길 117	종교시설	2013

자료: 서울시 미래유산 홈페이지(<http://futureheritage.seoul.go.kr>) 종교시설 검색 후 정리

## 5. 종교 관련 미디어

### ■ 방송

- 지상파방송사는 (재)기독교방송, (재)불교방송, (재)카톨릭평화방송, (재)원음방송, (재)극동방송 등 5개이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주)기독교복음방송, (주)기독교텔레비전, 불교텔레비전(주), 상생방송(주), (주)씨채널방송, (재)온누리선교재단, (주)씨엔방송 7개가 운영되고 있음<sup>7)</sup>
- 정기간행물의 경우 신문 270종, 잡지 599종이 발간되고 있음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2019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 제3절 국민 종교활동 실태

#### 1. 종교인의 사회참여 현황

- 통계청의 「2019년 사회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종교 관련 내용이 담겨 있음<sup>8)</sup>
  -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19세 이상) 문항에서는 2017년과 동일하게 취미활동(59.5%), 소득창출 활동(16.8%), 학습 및 자아 개발활동(10.3%), 자원봉사 활동(6.9%), 종교활동(5.9%) 기타(0.6%) 순으로 나타남. 종교활동 응답자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2-16〉 2019 사회조사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19세 이상)' 결과표

(단위: %)

	계	취미활동	소득창출 활동	학습 및 자아 개발활동	자원봉사 활동	종교활동	기타
2017년	100.0	58.6	17.3	9.5	8.2	6.1	0.5
<b>2019년</b>	<b>100.0</b>	<b>59.5</b>	<b>16.8</b>	<b>10.3</b>	<b>6.9</b>	<b>5.9</b>	<b>0.6</b>
도시(동부)	100.0	59.7	16.4	10.6	7.0	5.9	0.4
농어촌 (읍면부)	100.0	58.8	18.7	9.0	6.3	5.7	1.5
남자	100.0	60.4	19.5	9.8	6.1	3.8	0.4
여자	100.0	58.7	14.2	10.8	7.7	8.0	0.7
19~29세	100.0	67.4	10.9	14.0	5.2	2.3	0.1
30~39세	100.0	62.1	16.3	12.7	5.9	2.8	0.2
40~49세	100.0	57.0	17.9	12.3	8.9	3.9	0.1
50~59세	100.0	54.3	20.6	9.2	9.0	6.5	0.4
60세 이상	100.0	58.7	17.2	5.8	5.5	11.2	1.6

자료: 통계청(2019) 「2019년 사회조사결과」, p.12

8) 통계청(2019), 「2019년 사회조사보고서」

- 참여하는 단체활동의 문항의 경우 친목사교단체(77.4%), 취미, 스포츠여가 활동단체(47.3%), 종교단체(28.7%), 시민사회, 봉사단체(1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해당 문항의 종교단체 결과 값 또한 남성보다 여성, 6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2-17〉 2019 사회조사 '단체 참여(복수응답)' 결과표

(단위: %)

	계	참여자	친목, 사교 단체	취미, 스포츠, 여가 활동 단체	종교단체	시민 사회, 봉사 단체	지역 사회 모임	학술 단체	이익 단체	정치 단체	기타	미 참여자
2017년	100.0	49.7	78.2	43.6	28.2	8.4	10.4	5.6	3.8	1.3	0.1	50.3
<b>2019년</b>	<b>100.0</b>	<b>66.1</b>	<b>77.4</b>	<b>47.3</b>	<b>28.7</b>	<b>12.6</b>	<b>11.5</b>	<b>7.6</b>	<b>4.3</b>	<b>1.7</b>	<b>0.0</b>	<b>33.9</b>
남자	100.0	67.1	79.1	53.2	23.1	11.8	11.3	8.5	5.8	2.4	0.0	32.9
여자	100.0	65.1	75.6	41.5	34.4	13.3	11.8	6.7	2.7	1.0	0.0	34.9
13~19세	100.0	48.9	45.3	63.1	23.5	35.1	0.7	12.3	0.6	0.2	0.0	51.1
19~29세	100.0	60.8	73.1	55.7	21.2	10.6	1.7	14.3	3.0	0.7	0.0	39.2
30~39세	100.0	67.0	80.2	52.7	21.6	7.5	6.4	9.4	5.3	1.4	0.0	33.0
40~49세	100.0	71.0	79.5	52.2	25.5	13.5	11.2	7.5	7.1	2.3	0.0	29.0
50~59세	100.0	74.8	84.6	45.5	30.1	13.7	16.1	6.1	5.4	2.9	0.0	25.2
60세 이상	100.0	63.7	77.2	32.8	40.4	9.9	19.3	3.0	1.7	1.2	0.0	36.3

자료: 통계청(2019) 「2019년 사회조사결과」, p.22

주: 2017년까지는 3순위까지만 응답, 2019년은 참여한 모든 단체에 응답하도록 조사문항 구성 변경

-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 문항에서는 주중은 가족(41.2%), 혼자서(31.6%), 친구(18.5%), 직장동료(4.5%), 동호회(종교단체 등)(4.1%), 기타(0.1%) 순으로 높게 나타남. 주말의 경우 가족(53.5%), 친구(21.3%), 혼자서(16.9%), 동호회(종교단체 등)(7.1%), 직장동료(1.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2-18〉 2019 사회조사 ‘여가 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 결과표

(단위: %)

	계	가족	혼자서	친구 (연인포함)	직장동료	동호회 (종교단체 등)	기타
주중	100.0	41.2	31.6	18.5	4.5	4.1	0.1
주말	100.0	53.5	16.9	21.3	1.1	7.1	0.0

자료: 통계청(2019) 「2019년 사회조사결과」, p.27

## 2. 국민 여가활동에서의 종교<sup>9)</sup>

- 매년 실시하는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전체적인 국민의 여가활동 중 종교활동의 비중을 살펴보고자 함

###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개요〉

조사대상: 전국 만15세 이상 인구, 유효 응답자수: 10,060명

조사주기: 연 1회, 조사기간: 2019년 9월 9일 ~ 2019년 11월 14일

조사방법: 가구방문 면접조사

조사기관: 문화체육관광부(주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수행)

법적근거: 통계청 지정 승인통계(승인번호:113014호)

※ 여가활동 유형: A. 문화예술관람활동(8개), B. 문화예술참여활동(7개), C. 스포츠관람활동(4개), D. 스포츠참여활동(18개), E. 관광활동(11개), F. 취미오락활동(22개), G. 휴식활동(9개), H. 사회 및 기타활동(9개)

여가공간 유형: A.실내공간-문화(13개), 복지및교육(8개), 오락(13개), 체육(10개), 종교및기타(2개)/B.실외공간-체육(6개), 공원(2개), 관광및체험(10개), 오락(3개), 기타(3개)

※ 종교활동이 포함된 ‘사회 및 기타활동’ 유형은 사회봉사활동, 종교활동, 클럽/나이트/디스코/카바레 가기, 가족 및 친지방문,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 계모임/동창회/사교(파티)모임, 친구만남/이성교제/미팅/소개팅, 동호회 모임,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가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해당 조사에서 종교활동은 ‘사회 및 기타활동: 봉사활동, 친구만남 등 사회공헌이나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분류됨

(종교활동: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집안이나 집 밖에서 기도, 경전 읽기, 종교 관련 tape(불경, 성경, 찬송) 듣기뿐만 아니라 교회, 성당 절 등에서의 예배, 집회 참가와 같은 종교활동)

9)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 가장 만족스러운 여가활동(개별) 문항에서는 종교활동이 여가활동 전체항목 88개 중 상위 1순위 기준, 일곱 번째로 높게 나타남(3.8%)
  - TV시청(10.4%), 영화관람(6.2%), 산책 및 걷기(5.4%), 친구만남/이성교제/미팅/소개팅(4.7%), 인터넷검색/1인미디어제작/SNS(4.3%), 해외여행(3.9%), 헬스/에어로빅(3.8%), 종교활동(3.8%), 자연명승 및 풍경관람(3.5%), 등산(3.3%) 등의 순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높음(1순위 기준)
  - 즉 현대의 미디어, 해외여행, 인터넷 등의 여가활동에 비해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향후 미디어와 디지털 여가와 연계한 종교의 가치 확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표 2-19〉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종교활동 및 종교공간 항목 결과표

문 항	종교활동 및 종교공간 응답률	비 고
가장 만족스러운 여가활동(개별)	1순위: 3.8% 1+2+3순위: 7.8%	여가활동 전체 항목 88개 중에서 상위 1순위 기준 7위
동호회 활동(주된 활동) - 동호회 활동자 대상	3.5%	동호회 활동(주된활동) - 동호회 활동 대상 기준 7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 분야 및 활동	9.6%	여가활동 전체 항목 88개 중 휴식활동(9개)을 제외한 79개 중에서 2위 사회 및 기타 활동 항목 9개 중 1위
이용한 여가공간(개별)	1순위: 3.6% 1+2+3순위: 8.2%	이용한 여가공간 전체 항목 70개 중에서 상위 1순위 기준 8위
이용을 희망하는 여가공간(개별)	1순위: 3.2% 1+2+3순위: 5.8%	이용을 희망하는 여가공간 전체 항목 70개 중에서 상위 1순위 기준 8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 동호회 활동(주된 활동)-동호회 활동자 대상 문항에서는 종교활동이 항목 88개 중 일곱 번째로 높게 나타남(3.5%)

〈표 2-20〉 동호회 활동-동호회 활동자\_상위1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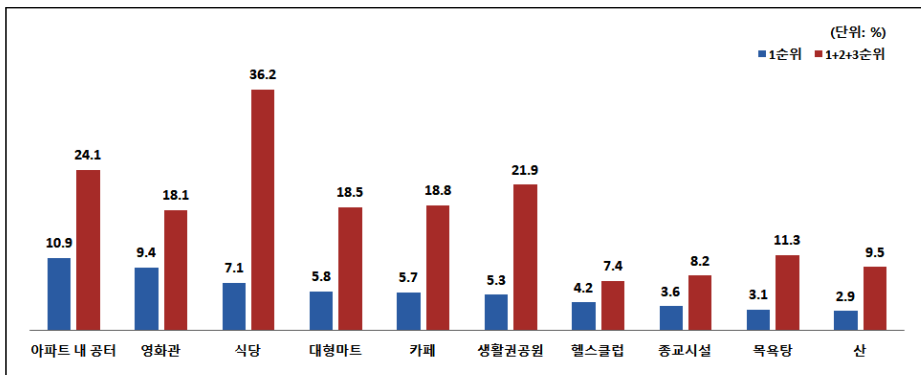
(사례수=1,014, 단위:%)

구분		농구, 배구, 야구, 축구, 족구	등산	볼링, 탁구	골프	배드민턴/줄넘기/ 맨손스트레칭/ 체조	악기연주/ 노래교실	종교 활동	헬스/ 에어로빅	사회 봉사활동	수영
전체		13.7	12.1	7.3	6.3	4.9	4.0	3.5	3.1	2.7	2.6
성 별	남성	20.5	13.1	7.5	8.4	4.8	4.1	1.9	1.9	1.8	1.8
	여성	0.4	10.2	6.8	2.1	5.3	4.0	6.7	5.6	4.5	4.0
연 령 대	15-19세	21.3	-	8.0	-	3.9	30.2	3.1	-	5.3	-
	20대	14.1	0.6	10.9	0.2	5.5	2.4	2.1	6.0	1.7	1.9
	30대	28.0	5.2	4.4	6.0	3.2	0.9	2.2	2.7	2.6	5.0
	40대	17.4	9.9	6.7	8.0	7.4	2.0	3.8	5.4	1.3	1.2
	50대	10.2	17.7	6.0	7.8	5.0	6.6	2.9	1.7	4.0	2.1
	60대	4.1	25.3	8.8	5.8	3.1	5.2	4.4	2.8	3.8	3.0
	70세 이상	1.3	8.7	10.2	9.1	4.9	1.4	8.5	-	1.1	3.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국민여가 활동조사」, p.43

-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 분야 및 활동 문항에서는 9.6%가 종교활동이라고 응답함
  - 항목 79개 중(휴식활동 9개 항목 제외)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헬스/에어로빅)종교활동>등산>영화관람 등의 순), 사회 및 기타 활동 항목 9개 중 1위를 차지함
- 이용한 여가공간(개별) 문항에서는 여가공간 전체 항목 70개 중에서 상위 1순위 기준 여덟 번째로 높게 나타남(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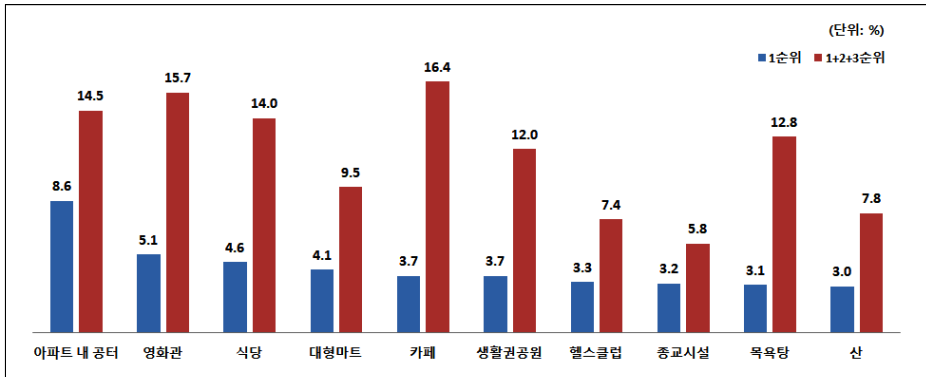
[그림 2-4] 이용한 여가공간(개별) 상위 10개(복수응답)





- 이용을 희망하는 여가공간(개별) 문항에서는 전체 여가공간 전체 항목 70개 중에서 상위 1순위 기준 여덟 번째로 높게 나타남(3.2%)

[그림 2-5] 이용을 희망하는 여가공간(개별) 상위 10개(복수응답)



- 결과표에 나타난 종교활동 및 종교시설 응답자의 특징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결론적으로 현대 미디어와 인터넷에 의한 여가활동이 강세이며, 건강, 문화콘텐츠산업의 비중이 커짐. 특히 코로나 이후 건강 등의 욕구는 높아질 것으로 보임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종무행정 방향연구

제3장

종교와 사회 그리고 미래



## 제1절 한국사회의 갈등과 정신건강 실태

---

### □ 사회문제와 종교

- 경제적 성장, 민주화 등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소외 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자살률, 갈등 등은 계속 높아짐
-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복지, 재정 등의 분야에서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시급한 정책적 해결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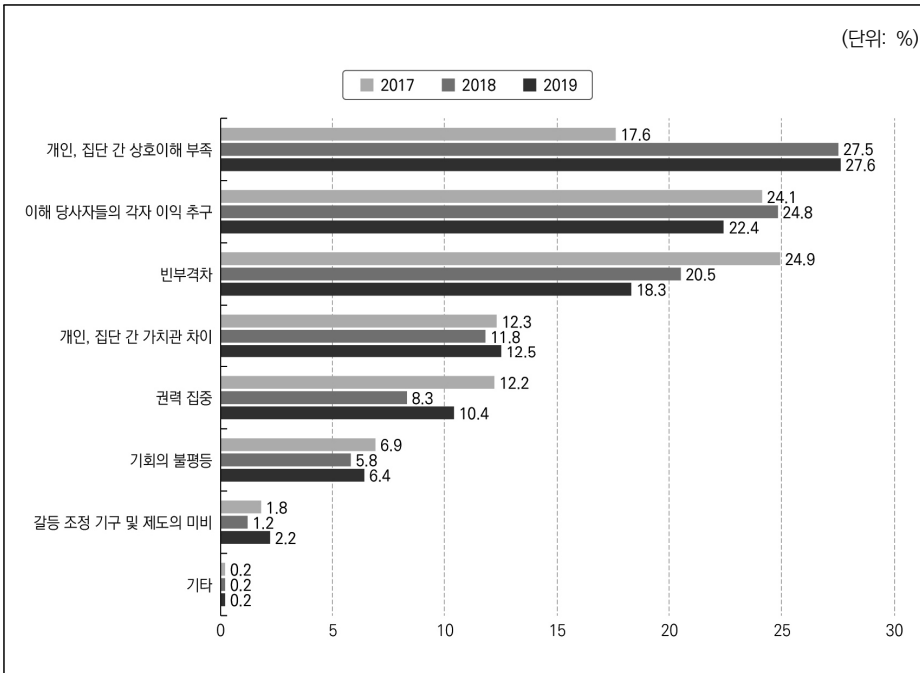
### 1. 사회 갈등 분석 및 요인

- 현재 한국사회는 개인 및 다양한 집단 간의 갈등을 겪고 있음.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은 보통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함
  - 해당 조사에서는 사회갈등의 정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9개 항목(빈곤층과 중/상층, 보수와 진보, 근로자와 고용주, 수도권과 지방, 노인층과 젊은층, 종교 간 등) 모두 4점 만점에 2.6점 이상으로 응답하고 있음. 9개 항목 모두 ‘심하지 않다’(①전혀 심하지 않다+②별로 심하지 않다) 대비 ‘심하다’(③약간 심하다+④매우 심하다)의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집단 간 ‘상호이해 부족’이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해 당사자들의 각자 이익 추구’(22.4%), ‘빈부격차(18.3%)’, ‘개인, 집단 간 가치관 차이’(12.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sup>10)</sup>

---

10) 한국행정연구원(2020),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p.67

[그림 3-1] 사회갈등의 원인 인식 차이



주: 2018~2019년 수치는 1순위 응답 비율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20),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p.6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2016)」와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갈등지수와 갈등비용 추정(2018)」 연구에서도 한국의 사회갈등 지수 점수 및 순위는 하위권에 해당함
  -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2016)」에서는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 및 관리 4개 영역의 19개 지표 값을 근거로 산출된 점수로 한국은 OECD 30개국 중 29위를 기록함. 덴마크(0.93), 노르웨이(0.86), 핀란드(0.85)가 상위 3개국이며, 이스라엘(0.17), 한국(0.21), 슬로바키아(0.23)가 하위 3개국임<sup>11)</sup>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pp.121-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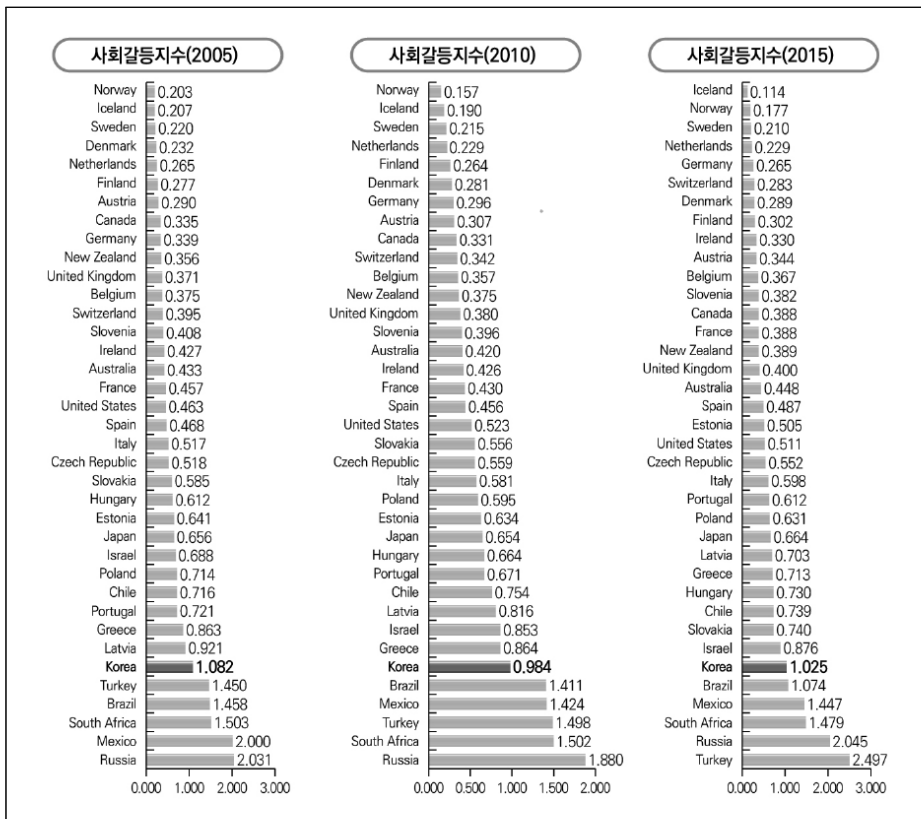
〈표 3-1〉 사회통합지수의 국가별, 연도별 현황

그룹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1	덴마크	0.92	0.92	0.92	0.92	0.93
	노르웨이	0.94	0.87	0.85	0.86	0.86
	핀란드	0.86	0.77	0.80	0.82	0.85
	스웨덴	0.93	0.90	0.87	0.76	0.80
2	벨기에	0.68	0.66	0.70	0.76	0.78
	프랑스	0.71	0.70	0.71	0.73	0.70
	룩셈부르크	0.68	0.65	0.68	0.70	0.66
	스위스	0.66	0.67	0.69	0.67	0.66
	네덜란드	0.76	0.75	0.71	0.72	0.65
	아이슬란드	0.64	0.68	0.74	0.63	0.65
	오스트리아	0.65	0.67	0.65	0.65	0.63
3	독일	0.72	0.66	0.60	0.60	0.60
	뉴질랜드	0.56	0.56	0.57	0.55	0.54
	영국	0.51	0.47	0.51	0.52	0.50
	체코	0.42	0.36	0.42	0.44	0.46
	이탈리아	0.54	0.54	0.51	0.48	0.43
	아일랜드	0.44	0.40	0.46	0.49	0.43
	호주	0.58	0.53	0.48	0.46	0.42
	일본	0.45	0.39	0.35	0.40	0.41
	캐나다	0.51	0.47	0.42	0.46	0.40
	스페인	0.51	0.49	0.49	0.51	0.37
4	포르투갈	0.53	0.53	0.54	0.59	0.33
	폴란드	0.34	0.36	0.35	0.39	0.34
	에스토니아	0.26	0.24	0.26	0.39	0.32
	헝가리	0.42	0.33	0.38	0.37	0.32
	그리스	0.33	0.39	0.38	0.40	0.25
	미국	0.38	0.39	0.33	0.31	0.25
	슬로바키아	0.29	0.30	0.26	0.27	0.23
	<b>한국</b>	<b>0.26</b>	<b>0.23</b>	<b>0.20</b>	<b>0.21</b>	<b>0.21</b>
	이스라엘	0.27	0.22	0.13	0.13	0.17
전체	중위수	0.53	0.53	0.51	0.51	0.45
	평균	0.56	0.54	0.53	0.54	0.50
	표준편차	0.199	0.197	0.204	0.192	0.21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p.125

- 「사회갈등지수와 갈등비용 추정(2015)」 연구에서는 잠재적 갈등요인(자원 격차-계층, 젠더, 세대, 가치관격차-이념, 젠더, 세대)과 갈등관리역량(국가-정치행정, 경제, 시민사회-시민적 자유, 시민적 덕성, 시민참여) 지표로 사회갈등지수를 측정한 결과 한국의 사회갈등 지수 점수 및 순위는 37개국 중 32위로 나타남<sup>12)</sup>
- 37개국 중 아이슬란드(0.114점), 노르웨이(0.177점), 스웨덴(0.210), 네덜란드(0.229점), 독일(0.265점)이 상위 5개국이며, 터키(2.497점), 러시아(2.045점), 남아프리카(1.479점), 멕시코(1.447점), 브라질(1.074점), 한국(1.025점) 등의 순으로 사회갈등 지수가 높게 나타남<sup>13)</sup>

[그림 3-2] 사회갈등지수 점수 및 순위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8), 「사회갈등지수와 갈등비용 추정」, p.115

12) 한국행정연구원(2018), 「사회갈등지수와 갈등비용 추정」, p.58, 62, 115

13) 한국행정연구원(2018), 「사회갈등지수와 갈등비용 추정」, p.114



- 사회갈등과 더불어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연도별 사망원인 순위에서는 고의적 자해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4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위를 차지하고 있음<sup>14)</sup>
  - 자살률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의 자살사망자는 1만 3799명으로 작년 대비 0.9%가 증가했음
- 사회 갈등의 원인과 문제 해결
  - 경제적 원인에 의한 갈등을 넘어서 ‘서로 간 이해 부족’, ‘이익추구’, ‘개인 집단 가치관차이’ 등은 기존의 정책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이면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큼
  - 코로나 등의 질병에서도 문제가 표출되는 부분은 정신적 가치 부분에서 집약됨.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결은 정신, 심리, 인문 등의 분야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음

## 2. 코로나19 이후 극대화된 사회갈등

- 기존의 갈등과 사회적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극대화되고 이에 대한 반응도 구체적인 사회현상으로 나타남
- 2020년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국민은 우울감, 무기력증, 불안 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음
  - 경기도의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우울감 조사’에서는 59.4%가 우울감을 느낀다고 응답함. 우울감의 원인으로 외출 자제로 인한 갑갑함이 42.1%로 가장 높았으며, 감염에 대한 막연한 불안(38.7%), 소득 및 지출 감소에 따른 스트레스(29.7%),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 혼란(23%), 관계단절 및 소통 감소(20.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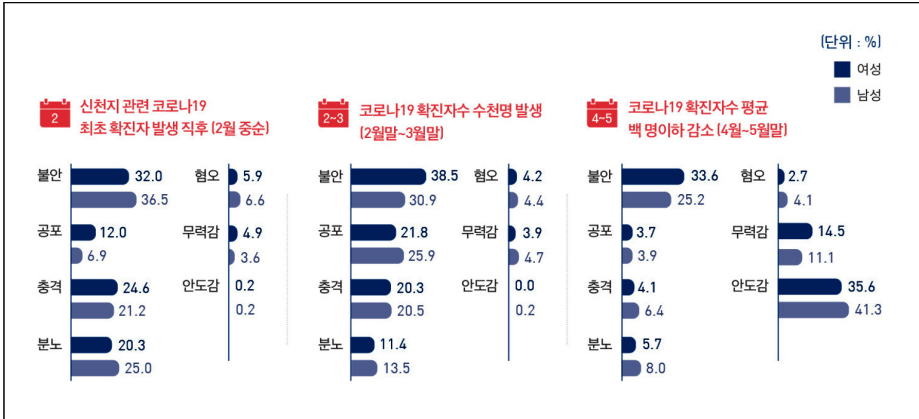
14) 통계청(2020), 「2019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pp.48-49

15) 경기도청,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관련 조사결과

(<https://survey.gg.go.kr/app/cscenter/infoGrView.do?bbsSn=3&bbscttSn=26181>)

-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코로나 관련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4.7%가 불안감과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의 대구시민의 감정변화는 불안·충격·분노→불안·공포→안도·불안' 등으로 나타남<sup>16)</sup>

[그림 3-3] 코로나19 발생 후 각 시기별 감정변화



자료: 대구여성가족재단(2020) 「대구여성가족브리핑 제42호」, p.2

- 지난 2015년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정신 건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메르스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완치된 생존자 148명 가운데 63명에 대한 정신건강을 조사한 결과 34명 (54%)은 1년 후에도 한 가지 이상의 정신적 문제를 겪었음. 42.9%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27%는 우울증, 22.2% 자살위험, 28%는 불면증을 보인다고 함<sup>17)</sup>
- 자살률의 증가 추세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16) 대구여성가족재단(2020) 「대구여성가족브리핑 제42호」, p.2

17) ParkHY, ParkWB, LeeSH, et al.(2020),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depression of survivors 12 months after the outbreak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in South Korea. BMC Public Health

[그림 3-4] 한국 메르스 생존자들의 정신건강 상태

Measure	Cut-off values	Prior to MERS <sup>a</sup>	during MERS <sup>a</sup>	At 12 months post-MERS
No.(%) of cases				
PTSD (IES-R-K)	0-24: within normal limits	—	—	36 (57.1)
	25-39: mild to moderate	—	—	12 (19.0)
	40-59: severe	—	—	9 (14.3)
	60-: very severe	—	—	6 (9.5)
Depression (PHQ-9)	0-4: no	48 (76.2)	13 (20.6)	28 (44.4)
	5-9: mild	10 (15.9)	8 (12.7)	18 (28.6)
	10-19: moderate	5 (7.9)	21 (33.3)	15 (23.8)
	20-27: severe	None	21 (33.3)	2 (3.2)
Anxiety (GAD-7)	0-4: no	51 (81.0)	19 (30.2)	43 (68.3)
	5-9: mild	7 (11.1)	11 (17.5)	11 (17.5)
	10-14: moderate	4 (6.3)	9 (14.3)	6 (9.5)
	15-21: severe	1 (1.6)	24 (38.1)	3 (4.8)
Suicidality (MINI) <sup>b</sup>	1-5: low	—	—	46 (76.7)
	6-9: moderate	—	—	7 (11.1)
	10-: high	—	—	7 (11.1)
Insomnia (ISI-K)	>= 15	—	—	18 (28.6)

자료: ParkHY, ParkWB, LeeSH, et al.(2020),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depression of survivors 12 months after the outbreak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in South Korea

- 재난 및 안전 문제의 발생 이후 치료가 중요하지만 향후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정책이 더욱 중요함
  - 갈등, 소외, 스트레스, 관계의 문제, 분노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
  - 함께 존중하고 소통하고 살아가는 사회라는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 또한 필요함
  - 강요하는 정신문화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정신문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제2절 사회 문제와 종교의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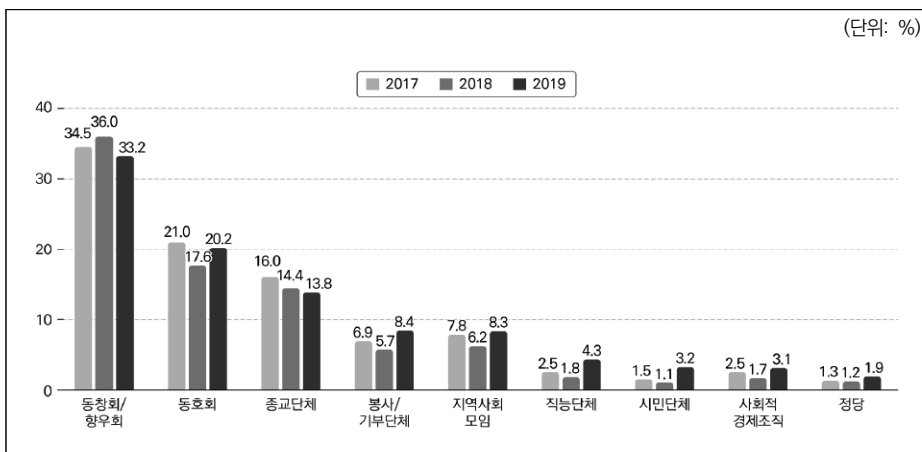
### □ 종교의 위상과 역할

- 사회적 문제의 확대에 비해 종교의 위상과 역할이 약해지고 있음
  - 종교가 있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사회에서 문제해결과 극복에 대한 종교에 대한 신뢰, 종교의 역할 가능성 또한 줄어드는 시점임

### 1. 2019 사회통합실태조사(종교부분) 검토

- 사회단체 참여 정도를 묻는 조사에서 종교단체는 13.8%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
  - 동창회/향우회가 33.2%로 가장 높았으며, 동호회(20.2%), 종교단체(13.8%), 봉사/기부단체(8.4%), 지역사회 모임(8.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5] 사회단체 참여 정도 차이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20),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p.68

주)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소속되어 가끔 활동 한다”의 응답 합계

- 국민의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은 보통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며, ‘종교 간 갈등’은 1~4점 척도 중 2.6점으로 나타남
  - 심하다(③+④)에 대한 응답은 56.7%로 심하지 않다(①+②) 응답 43.3% 비해 높게 나타남
  - 심하지 않다(①+②)에 대한 응답은 2018년 (41.6%)에 비해 2019년 43.3%로 낮아짐
  - 종교 간 갈등 인식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 우리 사회 갈등 정도-종교 간

(단위: %, 점)

구분	① 전혀 심하지 않다	② 별로 심하지 않다	③ 약간 심하다	④ 매우 심하다	평균(4점)
2018년	4.0	37.6	45.5	13.0	2.7
2019년	3.9	39.4	45.3	11.4	2.6
<b>성별</b>					
남자	4.1	38.8	45.6	11.5	2.6
여자	3.7	40.0	45.1	11.2	2.6
<b>연령</b>					
19~29세	3.8	41.7	42.8	11.6	2.6
30대	3.5	38.5	45.1	12.9	2.7
40대	3.9	38.1	46.0	12.0	2.7
50대	3.9	39.0	46.6	10.5	2.6
60~69세	4.6	39.9	45.8	9.7	2.6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20),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p.277 표 일부

- 기관별 신뢰 정도의 문항에서는 종교기관의 경우 믿지 않는다(①+②)가 58.3%로 믿는다(③+④) 41.7%보다 높게 나타남
  - 믿지 않는다(①+②)는 응답은 2018년(57.4%) 대비 2019년에는 0.9% 증가함. 더불어 전혀 믿지 않는다는 응답이 2018년 9.8% 대비 2019년에는 13.5%로 3.7% 증가하였음
  - 믿지 않는다(①+②)에 대한 응답은 여성(57.8%)보다 남성(58.7%)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믿는다(③+④)에 대한 응답은 40대(43.9%)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30대(40.3%)가 가장 낮게 나타남

〈표 3-3〉 기관별 신뢰 정도-종교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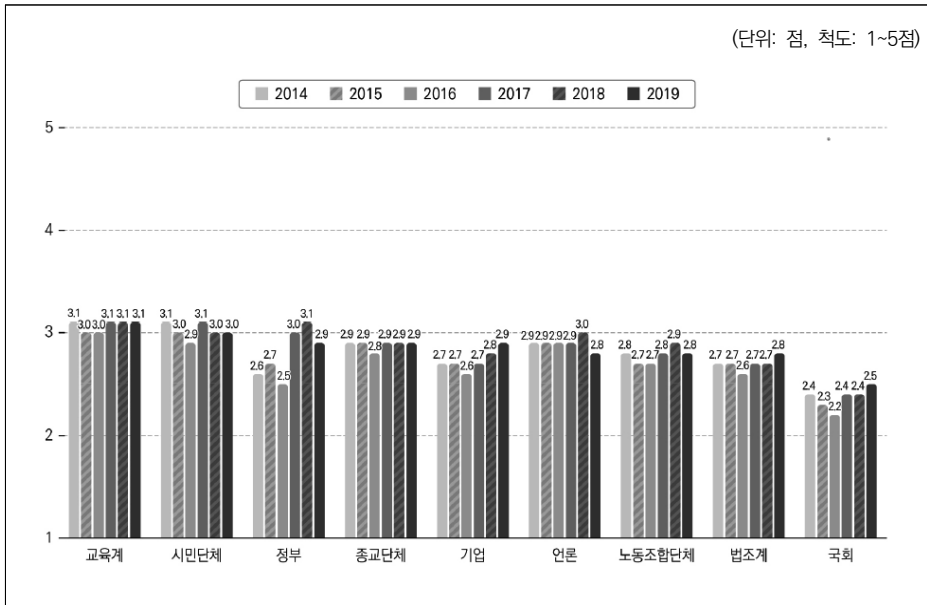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① 전혀 믿지 않는다	② 별로 믿지 않는다	③ 약간 믿는다	④ 매우 믿는다	평균(4점)
2018년	9.8	47.6	39.6	3.1	2.4
2019년	13.5	44.8	36.4	5.3	2.3
<b>성별</b>					
남자	14.2	44.5	36.1	5.2	2.3
여자	12.7	45.1	36.8	5.4	2.3
<b>연령</b>					
19~29세	15.4	43.9	36.6	4.0	2.3
30대	14.5	45.3	36.0	4.3	2.3
40대	13.3	42.8	37.1	6.8	2.4
50대	11.3	46.1	36.6	6.0	2.4
60~69세	13.3	46.1	35.6	5.1	2.3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20),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p.188 표 일부

-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가장 노력하는 집단으로 종교단체가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남
  - 교육계(3.1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민단체(3.0점), 정부(2.9점), 종교단체(2.9점), 기업(2.9)점, 언론(2.8점), 노동조합단체(2.8점), 법조계(2.8점), 국회(2.5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해당 문항에서 종교단체는 2016년 2.8점을 제외하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2.9점을 지속하고 있음
  - 대부분의 단체가 3점(5점 만점)을 간신히 넘거나 못 미치는 수준으로 사회갈등 해소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그림 3-6]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인식 연도별 추이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20),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p.68

-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1순위)로 9개 기관 중 종교단체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정부(29.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회(22.7%), 교육계(15.2%), 언론(13.7%), 노동조합단체(5.6%), 법조계(5.2%), 기업(4.1%), 시민단체(2.9%), 종교단체(0.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국민들은 종교단체에 대해 사회통합을 위한 중심역할을 할 집단으로 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음

〈표 3-4〉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1순위)

(단위: %)

구분	교육계	국회	기업	노동 조합 단체	법조계	시민 단체	언론	정부	종교 단체
2018년	10.9	19.3	3.8	3.8	2.6	2.4	14.7	41.7	0.8
2019년	15.2	22.7	4.1	5.6	5.2	2.9	13.7	29.7	0.9
<b>성별</b>									
남자	15.7	22.1	4.2	6.0	5.6	3.3	13.5	28.7	1.0
여자	14.7	23.2	4.0	5.3	4.7	2.6	13.9	30.8	0.8
<b>연령</b>									
19~29세	15.3	21.6	5.4	6.8	5.9	2.8	12.6	28.5	1.1
30대	16.3	21.9	4.1	4.4	5.1	2.7	12.7	32.4	0.5
40대	13.1	24.4	3.8	5.6	5.2	2.6	14.5	30.0	0.9
50대	15.8	23.7	4.2	5.2	5.1	3.0	13.8	28.5	0.8
60~69세	16.1	21.1	2.7	6.3	4.4	3.7	14.9	29.6	1.1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20),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p.288 표 일부

## 2. 사회에 대한 종교의 역할 및 기대 저하

- 아직도 전 국민의 절반이 종교가 있는 (43.9% 2015년) 현재, 종교의 사회적 역할 및 그에 대한 기대 및 신뢰는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임
  - 특히 사회통합을 위한 종교를 바라보는 것이 교육계, 국회, 기업, 노조, 법조, 시민단체, 언론, 정부보다 낮았으며, 점차 사회에 대해 개별화 및 폐쇄적인 종교가 되고 있음
- 또한 20대, 30대가 종교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연령대로 나타나고 있어 미래에 있어서도 사회통합에 있어 종교기관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이는 종교계 내부에서의 개선과 정부의 역할이 동시에 마련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제3절 미래의 사회변화와 종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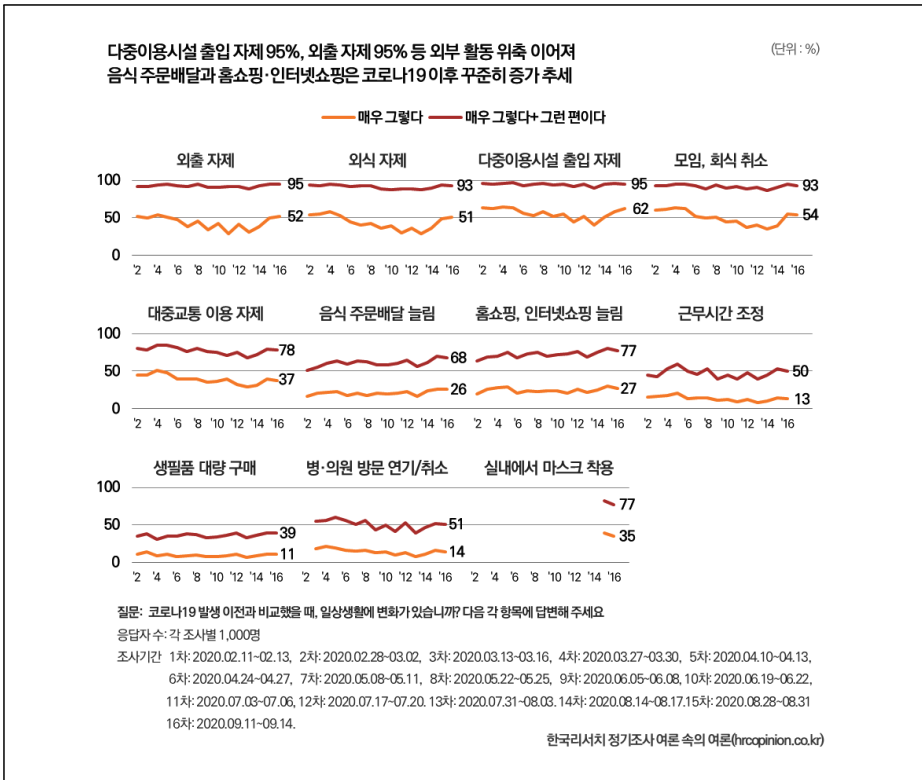
###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 변화

- 2020년 3월 1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을 선언함
  -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팬데믹이 선언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 세계적으로 일상화됨
  - 뉴욕타임즈의 칼럼리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은 새로운 역사적 구분으로 B.C(Before Corona), A.C(After Corona)를 언급한 바 있음<sup>18)</sup>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함
  - 이처럼 일상의 큰 변화를 겪으면서 각 기관, 언론 등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트렌트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Untact)’, ‘원격’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 활용이 활성화됨
  - 비대면 방식의 보편화로 재택근무, 원격수업, 화상회의, 비대면 소비 등이 활성화됨
  - 코로나19 이후 외출자제, 외식자제, 다중이용시설 출입자제, 모임·회식 취소 등의 일상생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남

---

18) The New York Times(2020.03.17.) “Our New Historical Divide: B.C. and A.C. — the World Before Corona and the World After”

[그림 3-7]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일상생활의 변화 조사



자료: 한국리서치(2020.09.23.), 코로나19 16차 인식조사

- 많은 관객이 모이는 콘서트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개최가 불가하기에 온 라인으로 대체하여 콘서트를 진행함. 온라인 콘서트는 공간적 제약이 없기 에 더 많은 관객을 모으고 있음. 실제 예로 방탄소년단은 ‘방방콘: 더 라이 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동시 접속자 수 75만 6600여 명을 기록했으며, 90분 간 250억의 수익을 낸 바 있음<sup>19)</sup>
- 모바일 앱 사용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온라인 쇼핑 목적의 오픈마켓이 14% 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배달(11%), 뉴스(10%), 홈쇼핑(6%)의 사용량이 증가함. 반면에 여행/숙박은 -41%로 대폭 감소했으며, 교통(-36%), 지도검 색(-19%)의 사용량 또한 감소함<sup>2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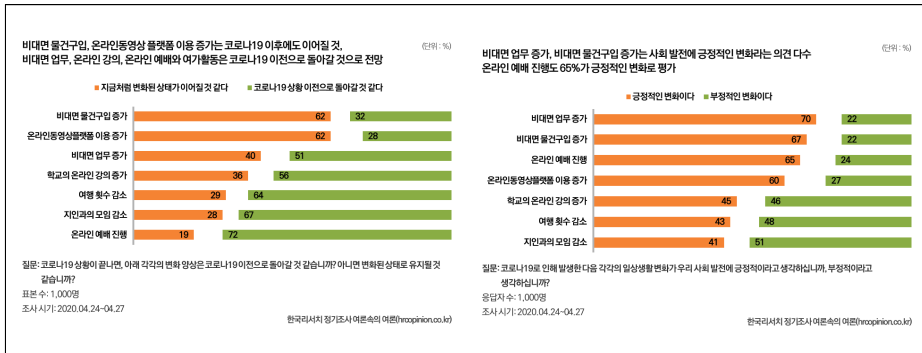
19) 한국경제(2020.06.15.) “방탄소년단 방방콘 90분간 250억 벌었다..세계최대 온라인 유료공연”

20) 코리안클릭(2020.03.27.) ‘코로나19’ 모바일 앱 이용행태 분석

(<http://www.koreanclick.com/insights/newsletter.html?code=digitalnow>)

- 특정 분야의 비대면 방식은 코로나19 이후에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코로나19 관련 인식을 묻는 조사에서는 비대면 소비,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에 변화된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함<sup>21)</sup>. 그러나 온라인 예배, 지인 모임, 여행횟수 등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응답함. 비대면 업무 증가, 물건구입 증가, 온라인 예배, 온라인동영상플랫폼 이용증가에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함

[그림 3-8]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관련 인식조사



자료: 한국리서치(2020.09.23.), 코로나19 16차 인식조사

-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중심의 미디어 소비가 증가함
  - 가정 내 체류시간 증가로 인해 방송 및 미디어 소비가 증가하였고, 특히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량의 증가세가 뚜렷함
  - OTT 서비스인 웨이브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한 달 반 동안의 기간에 실시간 시청 시간(16.4%), 영화 구매량(19.2%)이 증가하였고, KT의 시론 서비스는 1월 대비 2월 이후 일평균 시청자수(13%), 시청 횟수(18%), 시청 시간(17%)이 증가함<sup>22)</sup>
  -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2020년 1분기 동안 약 1600만 명이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고, 이는 2019년 마지막 분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임<sup>2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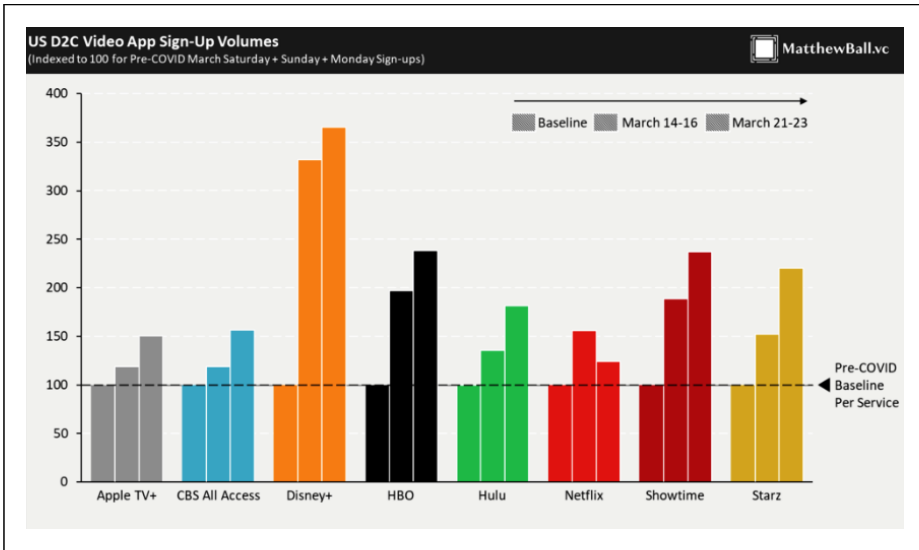
21) 한국리서치(2020.05.06.) 코로나19 6차 인식조사(상황 인식, 언택트 사회 전망 등)

22)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0) 「코로나19가 방송·미디어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p.8

23) BBC NEWS(2020.04.22.) “코로나19: 전 세계 봉쇄조치로 넷플릭스 가입자 1600만명 늘어”

- [그림 3-9]와 같이 미국의 코로나 발생 이전과 3월 14일부터 16일 그리고 3월 21일부터 23일의 OTT 서비스 가입자 추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OTT 서비스 업체 전체의 가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9] 코로나19 발생 이후 OTT 가입자 추이



자료: MatthewBall.vc(2020.03.29.) The Impact of COVID-19 on Pay-TV and OTT Video

- 코로나19 이후에도 성장과 분배, 경제적 성취와 삶의 질 가운데 성장과 경제적 성취가 우세하게 나타남
  - 포스트코로나시대 인식조사(2020)에서 우리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문항에서 분배(25.7%)보다 성장(43.6%)이 더 높게 나타남. 성취 중시와 삶의 질 중시 중에서도 성취 중시가 40.3%로 삶의 질 중시 39%보다 조금 더 앞선 수치임<sup>24)</sup>
  - 2018년의 동일 조사에서도 성장이 분배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주목할 부분은 2018년 3.95점(성장 문항 7점 척도 값)보다 2020년 3.62점(성장 문항 7점 척도 값)이 더 높게 나타난 것임<sup>25)</sup>

24) 한겨레경제연구소(2020) 「포스트 코로나시대 인식조사 결과표」, p.106, 122

25) 한겨레(2020.06.24.) “삶의 질보다 경제적 성취, 분배보다 성장에 방점”

〈표 3-5〉 우리사회가 가야할 방향(분배/성장을 중요시하는 사회) 조사

사례수	①	②	③	④ 중간	⑤	⑥	⑦	●성장 중요시	●중간	●분배 중요시
(1000)	9.3%	14.6%	19.7%	30.7%	14.2%	9.8%	1.7%	43.6%	30.7%	25.7%

자료: 한겨레경제연구소(2020) 「포스트코로나 인식조사 결과표」, p.106

〈표 3-6〉 우리사회가 가야할 방향(삶의 질/경제적 성취를 중요시하는 사회) 조사

사례수	①	②	③	④ 중간	⑤	⑥	⑦	●삶의 질 중요시	●중간	●경제적 성취 중요시
(1000)	12.3%	11.8%	16.2%	20.7%	19.7%	13.2%	6.1%	40.3%	20.7%	39.0%

자료: 한겨레경제연구소(2020) 「포스트코로나 인식조사 결과표」, p.122

#### ■ 코로나19 이후 변화 종합

-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미디어 집중 현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기존 종교활동 자체의 변화가 불가피함
- 가정 체류시간 증가, 지역 내 이동 감소 등에 의한 기존 내재된 갈등이 확대  
가능성에 대한 종교의 역할이 필요함
- 삶의 질보다 경제적 성취가 우선되는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이 극화될 가능  
성 높음에 대비한 역할이 필요함

## 2. 미래 사회 예측

### ■ 미래 정책 환경 예측

- 미래 정책 환경을 장기적으로 살펴보아 종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근거로 검토하고자 함

### ■ 문화예술트렌드: 2020 문화예술트렌드 분석을 보면 다음을 들고 있음<sup>26)</sup>

- 시간 민감성의 시대, 여가를 즐기자
- 일상 속 생활문화, 스머들다
- 각 이코노미와 예술인이 일하는 법
- 1인 크리에이터, 전문가로 인정받다.
- 혐오가 가져온 토론문화 우리의 다양성을 드러내다.
- 실패자가 아니에요, 문화적 응원
- 예술가는 젠트리파이어? 예술가의 생존법 찾기
- 남북교류, 문화교류에서 남북합작으로
- 문화분권, 지방자치 분권의 길을 열다

- 문화예술분야에서 여가, 개인, 1인, 그리고 분권 등이 트렌드로 분석되었음. 보다 개인화되고, 작은 단위, 작은 지역 그리고 생활과 일상이 중요해지는 트렌드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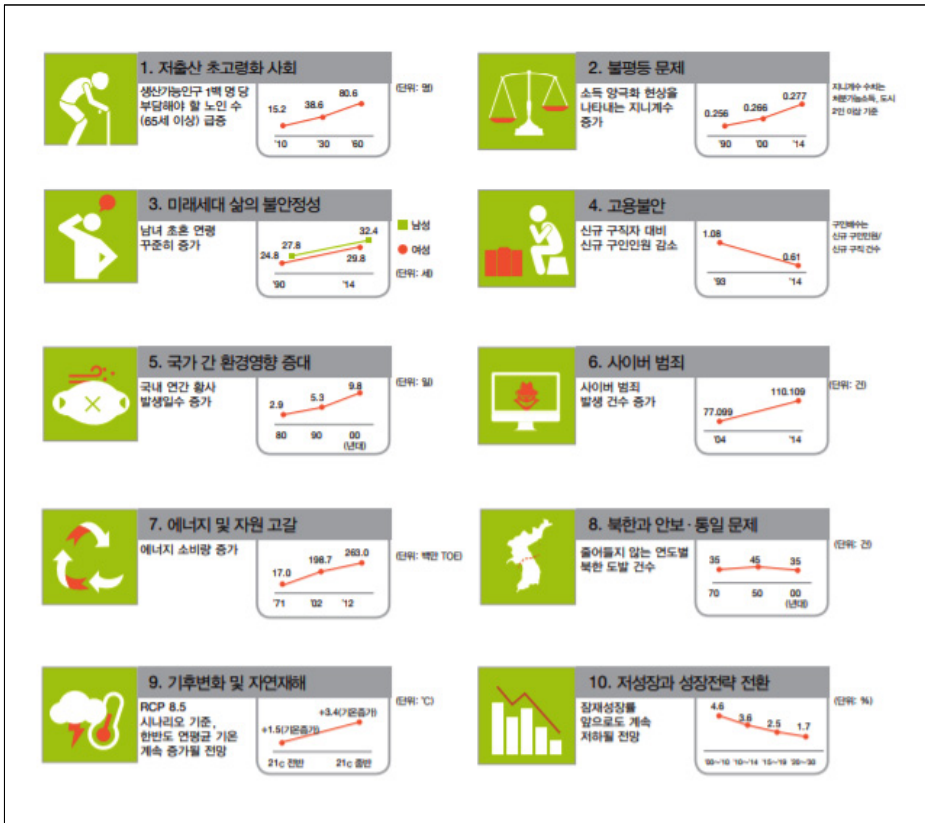
### ■ 사회 변화 및 정책 환경

- 현재 새로운 미래를 상징하는 단어로 ‘뉴노멀’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미 2016년 관련 보고서들이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일례로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등에서 발표한 ‘10년 후 대한민국 뉴노멀 시대의 성장전략’ 등이 있음<sup>27)</sup> 여기에서는 10년 후 사회 변화를 아래와 같이 예측하고 있음

26) 김혜인·김연진(2018), 2020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7)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2016) 10년후 대한민국 뉴노멀 시대의 성장전략

[그림 3-10] 10년 후 한국에서 중요하다고 인식된 10대 이슈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KISTEP·KAIST(2016) 『10년후 대한민국 뉴노멀 시대의 성장전략』, p.15

- 위에서 예측한 10년 후는 현재 코로나 이후 매우 급하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기도 함. 코로나 發 뉴노멀이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세계화, 비대면, 사회안전망, 소비의 변화, 디지털, 방역, Home (집에서의 생활), 홀로 등의 내용이 제시되고 있음
- 이러한 개념들이나 변화들은 향후 새로운 중무행정의 방향제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뉴미디어시대에서 가상과 현실의 간극을 극복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 ‘불안정과 고용불안’, ‘저성장의 갈등과 격차발생’ 등은 경제, 산업 분야를 넘어서 정신문화 관련 정책적 도입이 필요한 시점임

### 3. 종교의 미래 SWOT 분석

- 현대와 코로나19에 의한 변화, 미래 트렌드와 종교의 영향력/역할 비교
  - 사회적 변화, 코로나19에 의한 새로운 뉴노멀 시대와 향후 미래의 트렌드를 고려해 볼 때 종교가 가진 강점으로는 종교의 보편적 가치의 역할이 여전히 주요한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정신적 기능, 영향력과 사회활동에 대한 역량 등을 들 수 있음
  - 반면 종교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하락하며 나아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폐쇄적, 변하기 어려운 보수적인 부분에서의 약점이 존재함
  - 현대사회의 새로운 갈등과 정신적,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점으로 기회요소로 볼 수 있으나, 새로운 변화에 오히려 반대되는 부분이 드러나는 점은 큰 위협이 될 수 있음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종교의 보편적 가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교의 가치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공감할 수 있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li> </ul> </li> <li>○ <b>종교의 정신적 기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정치 분야에서 다룰 수 없는 정신문화부분을 담당하는 역할을 오랫동안 지속</li> </ul> </li> <li>○ <b>국가 및 국민의 영향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절반가량이 종교가 있음에 답변. 삶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큼</li> </ul> </li> <li>○ <b>사회적 활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 교육, 의료 등 사회분야 역할이 큼</li> <li>- 지역 공동체와 밀접한 관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종교에 대한 신뢰 감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교 있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사회조사 등에서 종교에 대한 신뢰역시 하락</li> <li>- 종교의 사회적 역할 축소</li> </ul> </li> <li>○ <b>사회 갈등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교의 보편성과 달리 일부 폐쇄성으로 인해 오히려 갈등유발 가능</li> <li>- 종교의 특수성과 사회의 보편성과 대립</li> </ul> </li> <li>○ <b>사회변화에 대응 미흡</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세대, 가치관, 트렌드 변화에 미흡</li> <li>- 기존 방식을 보수적으로 고수.</li> <li>- 개인의 취향과 가치에 대하여 소홀</li> </ul> </li> </ul>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현대사회에서 수요가 증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트레스, 갈등, 소외 등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관련 종교의 역할 증가</li> <li>- 특히 자살률, 갈등수위가 높은 국내에서의 종교의 역할 필요성 증가</li> <li>- 경제 중심의 사회에서 정신적 삶을 성찰할 수 있는 분야로 기대</li> </ul> </li> <li>○ <b>디지털과 뉴노멀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역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 미디어, 가상현실 등의 변화에 보완할 수 있는 인간성 중심 균형 있는 삶과 현실에 대한 성찰에 대한 역할 기대</li> </ul> </li> <li>○ <b>코로나 19 관련 새로운 수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블루 등 정신적 치유 수요 증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코로나19 이후 변화와 부조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대면, 온라인 일상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지만 수요에 비해 미흡</li> <li>- 위기상황에서 변화에 수세적</li> <li>- 지속화되는 개인화에 대응 미흡</li> </ul> </li> <li>○ <b>일상에서의 경쟁 분야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가시간에서의 경쟁 대상의 존재확대</li> <li>- 건강, 레저, 여행, 문화 등의 분야와제로섬게임에서 후순위</li> <li>- 사회활동에서 경쟁 증가 (협회, 단체 등)</li> </ul> </li> <li>○ <b>미디어 인터넷 시대의 위협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 관심, 욕구 등에서 새로운 디지털환경의 확대에 의한 위협 확대</li> <li>-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문화에 의하여 형성된 가치관과 차이 극복 어려움</li> </ul> </li> </ul>



■ SWOT를 통한 향후 개선방향 고찰

-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종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접근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 (Opportunity)	S-O 전략 강점으로 기회활용	W-O 전략 약점을 기회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류 보편적 가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교의 보편적 가치 확산을 통한 사회 평화, 통합 및 갈등 예방</li> </ul> </li> <li>○ 기술 중심사회에서 정신문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기술 중심의 현대사회에서 인류가 필요한 정신적 가치 제고</li> </ul> </li> <li>○ 종교의 기존 사회활동 적극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교 학교, 언론, 공간 및 미디어/온라인 적극 활용을 통한 코로나 등 위기대응, 정신적 건강 예방 역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교의 신뢰 하락과 수요 균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요구 고려하는 종교의 변화추진</li> <li>- 사회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는 종교개혁</li> <li>- 인구 구성 별 요구도와 수요를 고려한 종교 역할 개선</li> </ul> </li> <li>○ 사회 통합의 본연적 역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감하고 이해하는 통합적 가치 재확인</li> <li>- 평화와 공감의 역할 재확인</li> <li>- 개별 교단을 넘어 인류차원의 역할 고찰</li> </ul> </li> </ul>
	S-T 전략 강점으로 위협 극복	W-T 전략 약점의 문제를 해결
위협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에서 종교 역할 재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네트워크 및 사회적 활동 개혁</li> <li>- 온라인, 디지털, SNS 등 현대사회의 변화를 적극 수용</li> </ul> </li> <li>○ 코로나 및 미래환경 수요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여가행태 및 건강 등 다양한 현대사회의 수요와 연계</li> <li>- 환경, 인권, 다문화, 불평 등 다양한 현대의 이슈관련 해결에 적극적 역할</li> </ul> </li> <li>○ 코로나 19 관련 새로운 수요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 치유, 예방 등 적극적 연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에서의 신뢰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갈등보다는 화합,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종교의 가치 집중제시</li> </ul> </li> <li>○ 종교 본연적 가치 사회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사회 및 현대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 제시</li> <li>- 인류를 섬기는 종교의 자세 제시</li> <li>- 군림하기보다 봉사하는 종교의 자세 제시</li> </ul> </li> <li>○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젊은 세대 등 종교에서 멀어진 계층의 수요 파악 적극 대응</li> <li>- 종교 쇄신 운동 전개</li> </ul> </li> </ul>

■ 참고사례: 종교간 만남과 협력

- 지역차원에서 다양한 종교 간의 만남과 협력사례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의 홍보와 확산등도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화해를 위해 매우 중요함

**포항 종교계 상생·화합 다졌다**

천주교·불교 성직자·신자들 '2011 신년교례회' 6년째 종교 이해·공동의 선 추구 만남행사 눈길  
 “진정한 행복은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며 이를 위해 서로 배풀고 존중하며 공존하는 지혜를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2011 포항 천주교·불교 신년교례회’덕담 중에서  
 포항 지역 천주교·불교 성직자와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교를 초월한 상생과 화합을 다져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06년 1월 포항지역 천주교·불교 성직자와 신자들이 서로의 종교에 대한 이해와 공동의 선을 추구하기 위해 만남을 갖기 시작하면서 올해로 6년째 신년교례회를 갖고 있다. 이는 양 종교 성직자와 신자들이 주체가 된 종파를 초월한 행사로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시도에 그동안 화제가 돼 왔다. 그동안 이들은 성직자 간 친목과 이해 증진뿐 아니라 평신도 간의 상호 교류도 여러 차례 마련해 양 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왔으며 사회의 정신적 지도층이 일반 대중의 삶에 있어 올바른 이정표가 되는 역할을 해 왔다.



자료: 경북매일(2011.02.11.) “포항 종교계 상생·화합 다졌다”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종무행정 방향연구

## 제4장

# 종무 정책 변화 및 현황



# 제1절 대한민국 종무 정책 및 제도적 기반

---

## 1. 종무 정책의 변화

- 종무행정 담당 부서는 1948년 문교부 문화국 교도과에서 시작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로 확대되었음
  - 대한민국의 종무 행정은 1948년 문교부 문화국 교도과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1955년 문교부 문화국의 사회교육과와 문화보존과, 1963년 문교부 문화예술국 사회교육과에서 성인교육과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국민의 교육적 효과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음<sup>28)</sup>
  - 1968년도 문화공보부 문화국에 종무과가 설치되며 과 단위 정책 역할이 부여되었으며 종부행정이 분리되고 규모가 확대됨
  - 1979년에 종무과가 종무국으로 확대, 1982년에 종무국이 종무실로 확대되었음
  - 1990년 문화공보부에서 문화부로 개편되며 문화부 종무실로 바뀜
- 종무 정책은 탄압의 목적으로 했으나 사회교육 및 통합정책, 종교지원 업무 등으로 변화해옴
  - 일제강점기에 통제와 규제 중심의 종무정책은 대한민국정부 수립이후 탄압하는 목적의 과거 종무정책에서 새로운 정책으로 등장함<sup>29)</sup>
  - 초기에 등록 등을 통한 관리, 사회교육 및 사회통합 정책의 일환, 종교 지원 업무 등으로 변화해가며 동시에 중복되어 진행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8) 문화체육관광부(2010), 「종무행정백서 2009」, p.10

29) 종교문화연구원(2007), 「21세기 종무 정책의 기능강화와 발전방안연구」, p.4 재편집

## 2. 종교 관련 주요 법

- 주요 법은 아래 <표 4-1>에서 나타나듯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향교재산법」 그리고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sup>30)</sup>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을 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①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 ②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建築史)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 ③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 ④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 「향교재산법」은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은 “10·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여기에서 “10·27법난”이란 1980년 10월 제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 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함
  - 그러나 이 법들은 중무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법이 아니라 각 사항별로 제정되었으며, 특수 종교 관련 법이기 때문에 향후 종합 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0)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이외 종무 관련 법에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표 4-1〉 문체부 종무행정관련 주요 법령

법률명	주요 내용	비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사찰의 지정 및 해제, 전통사찰의 지원</li> <li>■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허가 등</li> </ul>	·제정: '87.11 ·개정: '12.02
향교재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교재산 재단법인의 설립, 향교재산 매매 등의 금지</li> <li>■ 향교재단 수입의 사용, 향교재단 이사 선임조건 등</li> <li>※ 향교재산은 지방고유 사무로 관리 운용</li> </ul>	·제정: '62.01 ·시행: '08.12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의결 사항</li> <li>■ 의료지원금 지급 및 환수, 사실조사 등</li> </ul>	·제정: '08.03 ·개정: '18.12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3. 종교 관련 제도 분석

- 자치 법규: 종교 관련 자치법규 즉 조례 및 규칙은 〈표 4-2〉과 같이 나타남
  - 각 지역별로 종교와 관련된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 중 달성군 및 전라북도의 경우 특정 종교중심이 아닌 협력,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발전이 중심이 된 조례로서 종무행정에 적절한 사례임

〈표 4-2〉 종교관련 조례 및 규칙

구분	조례 및 규칙
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조례, 조례 제2521호, 2020.6.29. 일부개정
2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조례, 조례 제2521호, 2020.6.29. 일부개정
3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1467호 2020.6.29. 일부개정
4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1304호, 2015.12.31. 일부개정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제2378호, 2015.11.10. 제정
6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군 종교 문화유적 발굴 및 성지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2561호, 2020.4.3. 일부개정
7	전라북도, 세계종교평화협의회 설립운영 및 지원조례, 조례 제4109호, 2015.10.12. 일부개정

- 사례: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교인 상호간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함으로써 달성군의 발전과 달성군민의 안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서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달성군 지역 내의 불교, 기독교 및 천주교 각 종단 또는 그 신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구성 된 단체를 말한다.

1. 회장: 3인 이하(공동의장), 2. 부회장: 3인 이하, 3. 감사: 3인 이하, 4. 간사: 달성군 공무원 각 종단 회장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달성군의 발전과 달성군민의 안녕을 위하여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달성군의 발전과 달성군민의 안녕을 위한 목적으로 협의회가 주최한 종단 또는 종교인의 행사
2. 사회 교육사업, 3. 사회복지 및 각종 봉사사업, 4. 인권신장 및 소외계층 보호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달성군의 발전과 달성군민의 안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특히 사회교육, 사회복지, 봉사, 인권신장, 소외계층보호 등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지원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어 중무행정에서 중요한 종교가 협력하여 사회에 가치를 반영하는 조례로서 제정되어 있음. 또한 협의회라는 거버넌스 구조에 공공에서 지원하는 형식은 향후 정부 중무행정에서도 벤치마킹이 필요함

■ 행정 규칙: 종교 관련 행정규칙 즉 훈령, 예고 및 고시는 <표 4-3>와 같이 나타남

<표 4-3> 종교관련 예고 및 고시

구분	예고 및 고시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766호, 2020. 6. 9., 일부개정
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6호, 2020. 6. 9., 일부개정
3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2호, 2015. 7. 16., 일부개정
4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설치운영 규정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7호 2008. 10. 27. 2008. 10. 27.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5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국방부훈령 제2301호 2019. 7. 31. 2019. 7. 31. 일부개정 국방부
6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9-13호 2019. 3. 31. 2019. 4. 1. 일부개정 국세청
7	부산·울산·경남 종교단체환경협의회 운영규정 낙동강유역환경청예규제13호 2013. 7. 25. 2013. 7. 25. 제정 환경부
8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소방청훈령 제2호 2017. 7. 26.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
9	종교단체 환경 정책 실천협의회 규정 환경부훈령 제787호 2008. 6. 26. 2008. 6. 26. 일부개정 환경부
10	종교지도자 양성 대법법인 지정 고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03호 2008. 6. 26. 2008. 6. 26. 제정 교육부



## 4. 기타 종무 행정 관련 제도

- 종무 행정 중심 관련 법 및 조례 등과 별도로 종교와 관련된 법률은 다양하게 나타남
  - 종교와 관련된 법률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는 종교가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줌
  - 이와 관련하여 고병철(2011)은 종교 관련 법률을 군부대, 교정, 공무, 문화, 방송, 관세, 근로·생계, 세금, 기타로 나누어 종교 관련 법률을 구분하여 총 아홉 가지 영역을 다음과 같이 나눔

〈표 4-4〉 종교 관련 법률 구분

영역	법령
군부대	〈병역법 시행령〉, 〈육군본부 직제〉, 〈해군본부 직제〉, 〈공군본부 직제〉, 〈해병대사령부 직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同 시행규칙〉, 〈군인복무규율〉,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등
교정	〈교도관직무규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同 시행규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同 시행규칙〉 등
공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문화	〈문화재보호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향교재산법〉과 〈同 시행령〉 등
방송	〈방송법 시행령〉 등
관세	〈관세법〉과 〈同 시행규칙〉 등
근로·생계	〈고용정책 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세금	〈부가가치세 시행령〉과 〈同 시행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과 〈同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과 〈同 시행령〉 등
기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준칙〉, 〈자연공원법〉과 〈同 시행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자료: 고병철(2011), 「한국 종교정책의 진단과 과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제64집, p.13

## 5. 종무 행정의 영역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한 종무행정 영역은 종교 관련 행정, 단체, 활동, 시설 등의 전반에 해당함

- 제12조에 기재된 종무실의 분장 업무는 ‘1.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종교단체·법인의 업무 및 활동의 지원’, ‘3. 종교 교류 및 협력지원’, ‘4.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5. 전통사찰 및 향교재산의 보존·관리’임<sup>31)</sup>

■ 종무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해 종무 1담당관과 2담당관으로 나누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종무 1담당관은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종교 간 협력 및 연합활동 지원’, ‘불교 관련 단체·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불교문화 활동 지원’,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종교문화콘텐츠 개발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종무 2담당관은 ‘기독교, 천주교 등 외래종교 관련 단체·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유교, 민족종교 관련 단체·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지원에 관한 사항’,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즉 종무 1담당관은 종무행정 계획·실태·개발 및 불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종무 2담당관은 기독교·천주교·유교·민족종교 등 불교 이외의 종교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음

〈표 4-5〉 종무실 종무 1담당관 및 종무 2담당관 주요 업무

종무 1담당관	종무 2담당관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독교, 천주교 등 외래종교 관련 단체·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종교간 협력 및 연합활동 지원	유교, 민족종교 관련 단체·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불교 관련 단체·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기독교, 천주교, 유교, 민족종교 등과 관련된 남북 및 국제 교류 지원
불교문화활동 지원	향교재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불교 관련 남북 및 국제교류의 지원	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지원에 관한 사항
전통사찰 지정·지원·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관련 업무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종교문화콘텐츠 개발 관련 업무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1)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제2절 종무 정책사업 분석

### 1. 2020년 종무 정책 예산

(단위: 백만 원, %)

사 업 명	19예산 (A)	20예산 (B)	증감 (B-A)	증감율
일반회계	56,591	50,887	△5,704	△10.1
□ 종교문화활동지원	13,208	13,317	109	0.8
○ 국제종교 교류협력	991	1,251	260	26.2
- 선·포교사 해외 프로그램 및 체험	343	343	-	-
- 국제종교교류협력	648	908	260	40.0
○ 종교의 사회통합 기능 강화	3,159	3,159	-	-
- 이웃종교이해 및 종교연합 활동 지원	1,456	1,456	-	-
- 청소년인성교육 활성화	1,203	1,203	-	-
- 생명문화 존중사업	416	416	-	-
- 북한이탈주민 종교문화활동지원	84	84	-	-
○ 공직자종교 차별시책추진	347	356	9	2.6
○ 종교문화활동 지원	8,711	8,551	△160	△1.8
- 불교문화행사 지원	3,835	4,045	210	5.5
- 기독교문화행사 지원	983	1,313	330	33.6
- 원불교문화행사 지원	436	436	-	-
- 민족종교문화행사지원	332	332	-	-
- 거례얼문화행사지원	500	500	-	-
- 천도교문화행사 지원	1,031	581	△450	△43.6
- 유교문화행사 지원	1,244	1,344	100	8.0
- 종교연합문화행사 지원	350	-	△350	순감

사 업 명	19예산 (A)	20예산 (B)	증감 (B-A)	증감율
□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25,354	24,842	△512	△2.0
○ 전통사찰 보존	20,884	19,438	△1,446	△6.9
- 전통사찰 보수정비	11,456	12,154	698	6.1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7,500	4,800	△2,700	△36.0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928	2,484	556	28.8
○ 종교문화유산 발굴 및 전승	4,470	5,404	934	20.9
-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2,000	2,000	-	-
- 한국유경정본화DB및활용시스템 구축	270	270	-	-
- 가산불교 대사림 편찬	700	700	-	-
- 불교전통문화 발굴 및 전승	540	620	80	14.8
- 언해불전 역해	200	200	-	-
- 한국천주교 사료목록화 사업	400	400	-	-
- 한국 교황청 관계사 발굴	180	450	270	150.0
- 기독교 사회운동사 정리보존	180	164	△16	△8.9
- 천주교조선교구 200주년 기념 신학대전출간	-	600	600	순증
□ 종교문화시설건립	17,710	12,440	△5,270	△29.8
○ 10.27법난기념관 건립 지원	5,000	3,000	△2,000	△40.0
○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3,850	-	△3,850	순감
○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 전당 건립	2,800	2,100	△700	△25.0
○ 한국불교문화 체험관 건립	1,160	1,740	580	50.0
○ 증도 기독교체험관 건립	500	-	△500	순감
○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	1,500	1,300	△200	△13.3
○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	800	1,200	400	50.0
○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건립	500	900	400	80.0
○ 천주교 복합예술공간 조성	1,600	1,500	△100	△6.3
○ 보문중 문화체험관 건립(신규)	-	500	500	순증
○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신규)	-	200	200	순증
□ 법난심의위원회 운영	319	288	△31	△9.7

## 2. 2020년 종무 주요사업 개요<sup>32)</sup>

### ■ 종교 문화활동 지원

- 사업목적: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간 이해활동지원으로 사회통합의 선도적 기능 수행, 국제종교교류 사업 추진으로 국내외 종교평화 분위기 조성, 종교 문화행사를 통해 국민의 종교문화활동 기회 확대
- 사업내용: 종교간 화합과 국제종교교류사업 추진, 종교계의 사회통합 활동 지원, 종교 인프라(종교시설, 문화행사, 인력 등)를 활용한 종교문화활동 지원  
: 선포교사 프로그램·홍보, 국제종교교류 추진(1,251백만 원)  
: 이웃종교이해 및 종교연합활동 지원, 청소년인성교육 등 종교의 사회통합 기능 강화(3,159백만 원)  
: 공직자종교차별 신고센터 운영 등 공직자종교차별시책 추진(356백만 원)  
: 국민의 종교문화활동 기회 증진을 위한 종교문화행사지원(8,511백만 원)
- 기대효과: 평화공동체 문화 창출, 건전한 사회 조성 도모

### ■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

- 사업목적: 전통사찰의 보수, 정비 등 체계적인 보존과 종교기록유산의 아카이브 구축, 활용을 통한 전통종교문화유산의 계승·발전
- 사업내용: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한국유경 정보화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등  
: 전통사찰 보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 전통사찰 보존 (19,438백만 원)  
: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한국천주교사료목록화, 한국민족종교사전편찬 등 종교문화유산 발굴 및 전승(5,404백만 원)
- 기대 효과: 노후화된 전통사찰에 대한 정비·보수 및 방재시스템 구축을 통한 문화재적 가치 제고, 종교문화유산의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종교문화 유산의 효율적 보존·계승 도모

32)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년 종무실 예산현황

■ 종교문화시설 건립

- 사업목적: 전통종교문화 체험시설, 종교화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
- 사업내용: 10.27법난기념관 건립 등 9개 시설 건립 지원
  - : 10.27법난 기념관 건립(3,000백만 원)
  - :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 전당 건립(2,100백만 원)
  - :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1,740백만 원)
  - :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1,300백만 원)
  - : 내포해미 세계청년 문화센터 건립(1,200백만 원)
  - :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건립(900백만 원)
  - : 천주교 복합예술공간 조성(1,500백만 원)
  - : 보문중 문화체험관 건립(500백만 원)
  - :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200백만 원)
- 기대 효과: 전통종교문화를 활용한 교육, 체험공간 확충으로 인간성 회복 및 사회갈등 해소

■ 법난심의위원회 운영

- 사업목적: 1980년 10월에 발생한 법난(法難)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 인권신장과 국민화합 도모
- 사업내용: 법난위원회 운영, 10.27법난 기념행사 지원, 의료지원금 지원 등
- 기대 효과: 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으로 불교계의 위상회복, 국민화합과 인권 신장에 기여

### 3. 현재 종무 정책사업 분석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종무실 업무와 비교

- 1.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미흡
- 2. 종교단체·법인의 업무 및 활동의 지원: 정상

- 3. 종교 교류 및 협력지원: 매우 제한적, 범 종교 교류사업 매우 적음
- 4.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미흡
- 5. 전통사찰 및 향교재산의 보존·관리: 정상
  - ※ 종무실 주요 업무 중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오히려 적음. 특히 종  
합계획, 실태조사의 경우 심각

#### ■ 종합

- 개별 종교지원 중심의 종무행정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확산이나 종교간  
화합, 교류부분이 매우 적음
- 종무실 기본 업무가 ‘종교 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종교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종교 간 화합에 기여’ 인데 관련 예산은 2020년의 경우 5.6%에 불과함(종  
교의 사회통합 기능 강화)
- 이외에 연합활동, 종교문화콘텐츠 개발관련 업무(제한적) 등도 매우 미흡하  
며 각 종교별 지원이 중심임

## 4. 종교 관련 정기적 조사 및 연구 실태

#### ■ 종무행정백서

- 종무행정백서는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9 종무행정백서’라는 제  
목으로 최초 발간되었음
- 내용은 1장 일반현황, 2장 2009년 추진성과, 3장 종교 계 주요 활동, 4장  
종무행정 업무편람, 그리고 부록으로 종교관련 법령, 세법규정, 각종 통계  
등을 제시되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활동, 관련 조사 및 통계, 제도를 망라한 백서로 발간되었음
- 그러나 해당 조사는 2009년 종무행정백서를 마지막으로 지속되지 않았음

#### ■ 한국의 종교 현황

- 한국의 종교현황조사는 2008년, 2011년, 2018년 총 세 번 이루어짐
- 가장 최근조사인 2018년 조사는 2011년 현황조사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차  
원에서 진행되었음

- 종무행정백서의 ‘종교계 주요활동’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 단, 백서와 달리 기초 통계자료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음
- 종교계 개관, 교세현황, 법인현황 등과 세계의 종교현황과 국제종교기구 현황이 제시되어 있음

## 5. 종무 관련 행정과 사업 분석

- 종합적인 중장기 종무 계획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에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예를 들어 고병철(2011)은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는 종무행정의 기본 업무에 해당되지만,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은 중장기 종합계획이라기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도 최근에 거의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음<sup>33)</sup>
  - 특히 김영삼 정부 민주화 이후에서는 종교정책이 각종 ‘지원’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데 이러한 이유로 능동적이고 계획적이며 종합적인 종무 정책이 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다수 있다고 평가되는 경향이 있음
  - 나아가 문체부 발간 ‘종무백서 2009’에서도 ‘중장기 종교문화정책의 부재’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음<sup>34)</sup> ‘종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업무’가 등장한 것은 1993년 3월이나 장기적인 종합계획은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33) 고병철(2011), 「한국 종교정책의 진단과 과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제 64집, p.11

34) 종무행정백서 2009, 문화체육관광부, 2010, p.12



## 6. 2021 종무 정책 및 사업 개선 관련

- 신규 및 증액사업은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제시되었음
  - 기존 제기된, 조사, 연구에 대한 필요성 대응, 협력사업 확대, 코로나 19 치유 등 사회적 역할 확대, 문화유산 및 문화사업 연계 등 기존의 문제와 필요성을 반영하는 사업 신규개발 및 확대 등이 반영됨

〈표 4-6〉 문체부 종무실'21년도 주요 증액 및 신규사업

구 분	사 업 명		비고
불 교	1	명상활용 국민체험행사	신규
	2	산사문화예술제	증액
	3	한중일·한일불교교류대회	증액
	4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증액
개신교	1	한국 개신교회 최초목사(김창식 김기범) 기념사업	신규
	2	기독교 근대문화유산 실태조사 및 연구	신규
	3	치유와 통합을 위한 평화음악회	신규
	4	우리마을 공감음악회	증액
	5	‘21 코리아 부활절 퍼레이드	신규
천주교	1	최양업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사업	증액
	2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사업	신규
	3	흑산도 정약전 평화의 길 조성	신규
	4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러시아 이콘(icon) 특별기획전 * 이콘(icon): 동방교회에서 예배시 사용하는 그림	신규
	5	한국교회 190주년 기념 「바티칸 2021 한반도 평화나눔주간」 세계 평화의 바람	증액
	6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	증액
종교 연합	1	7대종단 희망나눔 사업	신규
	2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길 개발	신규
연구조사	1	종교문화생활 관련 지표 개발 및 기초 통계 조사 (예정)	신규

- 지속적으로 지적된 종합계획 및 정기적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함
  - 신규 사업으로 종교문화생활 관련 지표 개발 및 기초통계조사 추진: 향후 정례조사로서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이며, 신규 사업으로 제시함
- 종교간 협력 및 교류 사업을 신규로 발굴함
  - 신규 사업으로 '희망나눔 사업' (7대 종단): 소외계층, 취약계층, 탈북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 7대종단 희망나눔 캠페인을 추진, 대한민국 종교계가 앞장서 위기 극복 후 함께하는 대한민국 분위기 재 조성함
  - 신규 사업으로 '치유 순례길': 유무형의 종교문화 기반을 활용,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치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함
- 코로나 19 치유 등 사회적 가치 확인 사업을 제시함
  - 신규 사업으로 '명상활용 국민체험 행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의 불안경험 극복과 정신 치유를 위해 불교명상을 활용한 국민체험 행사 지원이 필요함
  - 신규 사업으로 '치유와 통합을 위한 평화 음악회':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치유를 위한 평화음악회를 통해 종교의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함
  - 연합 사업으로서 '희망 나눔', '순례길' 등 코로나 19 치유 효과를 기대함
- 종교의 문화유산 보호 및 문화연계 사업을 지속 및 확대함
  -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전통문화로서 불교문화에 대한 가치 및 인식 확대.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려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도모함
  - 신규 사업으로 '기독교 근대문화유산 실태조사 및 연구': 한국 기독교 근대문화유산의 전수조사를 통해 유산의 전체적인 규모와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목록화를 통해 기초자료 확보. 한국기독교 근대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여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학술연구 및 콘텐츠를 개발함
  -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최양업 신부탄생 200주년 기념 오페라 개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문화행사를 통해 신앙인과 비 신앙인 모두 향유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함
  - 지역과 예술의 만남: 지속사업으로 '우리 마을 공감음악회', 지역교회에서 마을주민과 문화예술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음악회 기획 및 공연 참여 기회를 제공함

## 제3절 종무 정책 성과 분석

### 1. 종무 정책의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교계와의 신뢰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무행정을 담당하는 종무실의 오랜 기반 마련과 지적 소통을 통해 양자 간 신뢰와 더불어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했음</li> </ul> </li> <li>○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정신문화 통합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 정신분야를 다루는 유일한 정부 부처</li> <li>- 타 사회 부처 (복지, 교육 등)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부처</li> </ul> </li> <li>○ 종교 시설 및 공간관련 경험, 노하우 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대문화유산, 전통사찰 등 다양한 종교유산관련 경험과 정책 역량 축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무행정의 비전과 방향에 대한 고민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과 시설 관련 업무에 치우쳐 있어 비전과 추진방향을 가진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부족함</li> <li>- 개별 종교중심 정책 사업으로 협력/교류 미흡</li> </ul> </li> <li>○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조직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국가 행정과 같은 전달체계 도입 어려움. 거버넌스 중심의 정책체계 도입 필요.</li> <li>- 종무행정 조직과 종교계로 양분화 되어 있는 체계로 중간 협의와 지향점을 공감할 수 있는 프레임이 없음을 시사함</li> </ul> </li> </ul>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사태 이후 종교 관련 정책수요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교차별 및 비람직한 종교생활, 공동체화합, 정신적 가치 등으로 접근한 정책 마련 가능함</li> </ul> </li> <li>○ 종교는 국가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문체부 정책과 연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수의 종교 시설은 주요 문화재이며, 종교 축제와 같은 종교문화를 문화관광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음</li> <li>- 여가, 레저, 관광, 생활문화, 지역문화,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문체부 정책과 연계 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종무행정 범위 제한</li> <li>○ 갈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과 공생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위험도 상존. 세밀한 접근 필요</li> </ul> </li> <li>○ 종교 간, 종교인 및 비종교인 간 오해요소가 다분하여 균형 잡힌 정책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종교 간 비전 및 가치가 상이하며, 비종교인의 종교 지원에 대한 공감 부족으로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li> </ul> </li> </ul>

#### ■ 강점요소(Strength)

- 종교계와의 신뢰 구축: 종무실이 오랜 기간 동안 종무행정을 추진해 오면서, 상호 소통을 통해 신뢰에 기반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음

-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정신문화 통합 담당: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를 포함해 인문 정신분야를 다루는 유일한 정부 부처임
- 타 사회 부처 (복지, 교육 등)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삶의 의미, 인간의 본질적 가치와 같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부처임
- 전통 사찰을 포함해 근대문화유산으로서 종교 시설 및 공간을 관리해 온 경험이 풍부하며, 이 과정에서 종교 문화 콘텐츠에 대한 노하우와 관리 역량을 축적하고 있음

#### ■ 약점요소(Weakness)

- 종무행정은 정교 분리라는 엄격한 헌법적 원리로 인해 여타 일반 국가 행정과 같은 방식의 정책 추진 체계를 도입하기가 어려움. 그러므로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도입이 필요함
- 종무행정의 장기전 비전과 방향 제시 미흡: 종교계의 민원과 종교 시설 관리 업무에 치우쳐 있어, 장기적 비전과 추진방향에 입각한 정책 추진이 부족했음
-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조직 부재: 종무행정 조직과 종교계로 양분화 되어 있는 체계로 중간 협의와 지향점을 공감할 수 있는 프레임이 없음
- 기존 정책이 주로 개별 종교를 대상으로 분절적으로 수행된 탓에, 종단을 망라하는 협력 및 교류 사업 등이 현저하게 부족함

#### ■ 기회요소(Opportunity)

- 코로나19 사태 이후 종교 관련 정책수요 발생: 종교차별 및 바람직한 종교 생활, 공동체화합을 위한 종교의 역할, 정신적 가치의 강조 등으로 인해 새로운 종무 정책의 방향이 요청됨
- 종교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 중 하나로 문체부의 여러 정책과 연계 가능: 종교 시설은 공동체의 문화자산이며, 종교는 인간의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또한 종교 축제 등의 종교문화 콘텐츠는 문화, 예술, 관광의 귀중한 자산임
- 여가, 레저, 관광, 생활문화, 지역문화,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문체부 정책과 입체적인 방식으로 연계가 가능함

■ 위협요소(Threat)

- (헌법상) 엄격한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종무행정 범위가 근본적인 차원에서 제한됨
- 종교 간, 그리고 종교인 및 비종교인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움: 각 종교의 가치가 상충하기 쉬우며, 비종교인의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나 공감 부족으로 인해 정책 추진 시 형평성과 균형의 원칙이 절실하게 요청됨
- 절대적 세계관인 종교의 특성 상 갈등을 극대화 하는 위험 요소가 있음. 세밀한 접근이 수반되지 않으면 통합과 공생이 아닌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킬 우려도 상존함

■ SWOT 분석을 토대로 도출한 향후 지향점

- (사회변화 대응) 사회갈등, 코로나19, 디지털화, 고령화 등의 사회 변화를 반영한 종합적 종무정책 방향제시
  - (정책체계 정비) 종교의 본질적인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실천적 시스템(프레임) 마련
  - 종단의 독립성에 기초하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에 기초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기획
  - (통합적 시각에서 정책 추진) 종무 정책을 기존의 종단 중심에서 통합적인 시각을 보완. 개별 종단에 국한된 사업은 형평성과 균형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통합적 접근이 필요
  - 예술, 인문, 관광 등 문체부 타 영역과 종교를 입체적으로 연계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발굴
- 종무정책의 성과 분석 및 개선 방향
-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종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종무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함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기회 (Opportunity)	S-O 전략 강점으로 기회활용	W-O 전략 약점을 기회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신뢰구축 성과를 시스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뢰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정책으로 전환</li> </ul> </li> <li>○ 문체부가 종무행정의 방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버넌스를 통해 종합된 종무행정 방향을 반영</li> <li>- 비전과 방향성 있는 종무정책 전개</li> </ul> </li> <li>○ 종교의 역할 확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체부 정책분야 (문화예술, 관광, 체육, 미디어, 콘텐츠 등) 적극 연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위협을 기회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에 불거진 갈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인 정책 변화로 반영</li> <li>- 협력과 화해 중심의 종무행정으로 전환</li> <li>- Top down 방식이 아닌 거버넌스가 행정의 중심으로 반영</li> </ul> </li> <li>○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는 종무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의 수요와 종교의 요구를 반영하는 종무정책 시스템 개혁</li> <li>- 관련 제도(법)와 기구, 조사 등 기본적인 정책의 기반 마련</li> </ul> </li> </ul>
	S-T 전략 강점으로 위협 극복	W-T 전략 약점의 문제를 해결
위협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대상에서 정책의 주체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와 종교계가 협력하는 정책개발 시스템 마련</li> <li>- 사후 처리보다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 시스템으로 전환</li> </ul> </li> <li>○ 정부의 역할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과 화해, 치유 중심의 종무정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계기 마련</li> <li>- 갈등 사후 조정보다 갈등 사전 예방 중심의 정부역할 제고</li> </ul> </li> <li>○ 정신문화의 가치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안전망, 문화다양성, 문화예술의 치유적 가치, 사회적 가치 등이 종무정책과 타 문체부 정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간 매개 역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버넌스와 정부행정의 중간단계 역할 제시</li> <li>- 조사, 연구, 의견수렴, 개발 등 역할</li> </ul> </li> <li>○ 국민과 종교의 거리 좁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민 종교의 이해, 종교 리터러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정부차원 마련</li> <li>- 온/오프라인 통한 한국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 마련</li> <li>- '종교 문화'에 대한 연구와 홍보, 교육 프로그램 마련</li> </ul> </li> <li>○ 새로운 세대와 종교의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 종교 페스티벌, 문화 프로그램 등 적극 개발</li> </ul> </li> <li>○ 거버넌스/매개/정부/지자체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 구조마련</li> <li>- 지자체 종무 담당과 종무실 협력기반 마련</li> </ul> </li> </ul>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종무행정 방향연구

제5장

결론:  
종무 정책 중장기 방향





# 제1절 새로운 정책 방향 구상

## 1. 방향 구상을 위한 전제

- 포용국가와 문화안전망의 기반으로서 종무정책 실현
- 종교인이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 정책구조 지향. 지원과 협력의 정부역할: 상생
- 종교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종교간 협력 정책 중심의 방향: 공감
- 문화유산, 문화콘텐츠, 문화거점, 문화다양성, 지역문화에서 종교 역할 적극 연계: 문화

## 2. 비전 및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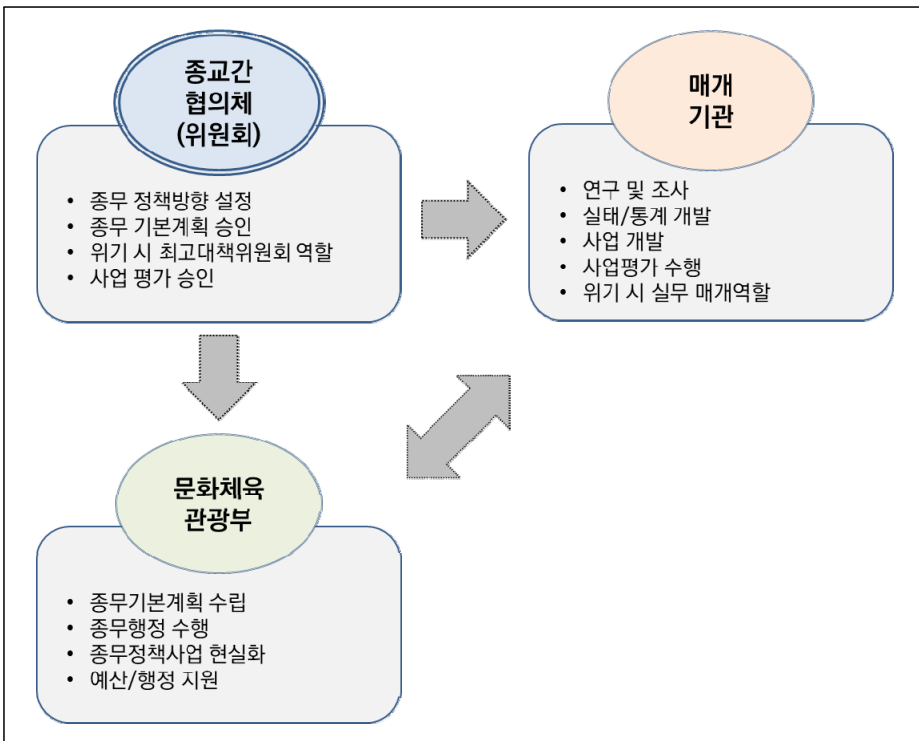
비전	공감과 상생의 사람이 있는 문화 확산		
추진방향	종무행정을 통한 공감과 상생실현	종교가 지향하는 포용가치의 확대	다원주의에서 문화적가치로
주요과제	종무 행정 거버넌스 구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프레임 설정, 매개역할 조직 마련	
	종교 간 평화적 공존	다종교사회로서의 장점 확대, 종교 간 이해 및 평화공존 프로그램 확충	
	종교적 가치를 일상에서 구현	종교의 가치를 일상에서 구현, 종교 분야 문화안전망, 포용 및 치유 프로그램 확충	
	문화거점·콘텐츠로서 종교문화 적극 활용	종교적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콘텐츠 활용, 문화관광 요소 연계 콘텐츠 마련	
환경변화	한국사회 내 개인 및 다양한 집단 간의 갈등 심화		
	자살률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무기력증, 불안 장애 등의 정신건강 악화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한 4차산업혁명 가속화		

### 3. 과제별 핵심 추진내용

#### ■ 종무 행정 거버넌스 구축 및 기반마련

-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프레임 설정 필요) 현재 소통의 구체적인 목적 없이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만남을 반복하였으나 향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향을 종교계가 직접 제시하고 종교의 장점을 사회에 구현하는 역할을 주도해야 함
- (양분화 된 체계를 타파하고 매개 역할 조직 마련) 종교문화연구원, 재단 등과 같은 매개 역할을 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종무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 요소들은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함. 실태조사, 종교유산 조사, 종무행정 평가 등에 대한 부분은 거버넌스 차원에서 추진함

[그림 5-1] 종무 거버넌스 구성(안)



-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 네트워크 마련. 지역기반 종교활동의 현상을 반영하고 전국단위 정책 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 정례적 회동 및 네트워크 마련
- 거버넌스 및 실태조사, 종합계획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정

■ 종교 간 평화적 공감과 공존

- 다종교사회로서의 장점을 확대하여 종교 간 존재를 공감하고 교류와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함

(종교유형별 현황) 다양한 종교 존재('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4,905만 명 중 967만 명이 기독교(개신교), 761만 명이 불교, 389만 명이 기독교(천주교), 8만 명이 원불교, 7만 명이 유교, 6만 명이 천도교, 대종교 및 기타 종교가 16만 명으로 나타남)

(다종교사회의 화합을 위한 정책 마련) 종교 간 존재를 공감하고 교류와 소통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 나아가 종교 다원주의 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한국은 종교 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종교문화를 지닌 국가라는 것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가 필요함
- 상호간의 이해와 공감에서 출발하는 종교정책 지향 ▷ 포용국가 연계

■ 종교적 가치를 일상에서 구현

- 문화안전망의 역할을 종교를 통해 공유 및 협력
- 공감/상생/행복을 일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제시

■ 문화거점·문화콘텐츠로서 종교문화 적극 활용

- 종교축제, 사찰, 근대문화유산, 종교 시설 등의 종교적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콘텐츠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음

(종교시설 현황) 전통사찰 986개소(\*2020년 업데이트), 향교 234개소, 서원 581개소, 사우 234개소가 있음. 종교 관련 박물관·전시관·역사관은 139개이며, 기념관·미술관은 29개임

(종교 관련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불교 1,503개, 유교 99개, 천주교 38개, 개신교 33개, 단군신앙 3개, 기타비종교포함 2,987개로 총 4,663개임

(종교문화축제 현황) 종교축제 26건, 지역축제 87건

자료: 2018 한국의 종교현황 기준

-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콘텐츠, 미디어 분야와 연계된 적극적 문화-종교 연계 정책 추진
- 생활문화, 동아리, 문화다양성 및 이주민 문화 프로그램 등 연계
- 문화영향평가 등에 종교기관의 역할 제고
- 종교 실태조사 및 종무행정 평가 정례적 추진
  - 2021년 지표개발을 통한 실태조사 1차 추진이후 개선하여 정례적인 실태조사로 제도화
  - 종무 실태조사의 정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종교와 국민에 의한 종무행정 평가 체계를 개발. 이후 지속적인 종무행정의 중립적이고 발전적인 평가를 정례화
- 종교 리터러시 및 접근성 강화 정책
  - 종교를 이해하고 종교문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기반 마련.
  - 종교의 보편적 가치와 역할, 사회적 역할 등을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 마련
  -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고 공감할 수 있는 종교 라키비움(아카이브, 도서관, 박물관 결합) 설립
  - 온라인 '종교 문화 시디털 서비스 플랫폼' 구축. 종교의 이해와 미디어의 연계
  - (가칭) 세계종교평화축제, 순례길 체험 등과 같은 문화관광 요소와 연계한 콘텐츠 마련

## 제2절 비전 연계 신규 과제(안) 도출

---

### 1. 종무정책 제도 마련

- 종교간 협의체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협의체 요건 반영
- 법정종합계획 내용 설정, 계획수립·승인 및 시행, 예산 반영
- 장기적이고 정례적 제도/정책/사업 개발 및 지속화의 근거 필요
- 관련 중간단체 법인화 등을 통한 역할 제도적 부여 필요
- 문체부와 지자체 협력 네트워크 마련
- 종무행정기본법(안) 등 제도화 필요
  - 목적, 정의(종무행정, 종무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기본계획, 위원회(협의체) 구성, 법정기관 설립 및 운영, 종교문화센터 등 시설 조성 및 운영 등 규정화

### 2. 조사 연구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사업

- ‘종교문화생활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정례화 및 제도화
  - ‘종교 활동 실태조사’는 종교인의 비율, 주요 종교 단체 및 활동, 기타 종교 관련 통계 및 자료를 망라한 조사로 매년 혹은 격년 단위로 조사하여 발간해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종교유산 및 문화공간 조사 병행 추진

#### 종교활동 실태조사 기본 대 항목

1. 종교활동 일반 - 종교유무, 해당 종교, 해당 종교단체, 종교활동 행태 (시간, 횟수, 참여도), 관련 프로그램 및 활동, 종교활동 제약사항, 인식 및 만족도
2. 일상/생활 - 응답자의 여가 및 일상 행태 (비교를 위한)
3. 공간 및 장소 - 이용 종교시설 지리적 환경, 접근성 등. 시설 이용 행태
4. 개인적 가치 - 개인에 대한 종교의 가치 및 역할, 요구도
5. 사회적 가치 - 사회에서의 종교의 가치 및 역할, 요구도
6. 문화적 가치 및 활용 - 종교를 통한 문화 활동 전반, 인지도, 장점 및 제약사항
7. 기타 (타종교 인식, 종무행정 요구사항 및 평가, 종교문화유산 인식 등)
8. 일반적 특성
9. 종교시설 및 공간 지리적 정보 GIS 구축

#### ■ ‘한국종교문화연구센터(가칭)’ 건립 추진

-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이 주축이 되어 ‘종교문화연구센터’를 공익재단 형태로 건립함
- 이를 통해 정부와 종교계, 그리고 사회 전반을 연결하는 정책 추진의 기반으로 활용함

※ 매개단체로서 센터 구성의 안과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구성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음. 연구/조사 중심의 단체로서는 독립적인 조직이 적절하나, 주요 행정의 계획 및 개발, 평가 또한 위기 시 중간 조직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연계된 법인의 형태 필요함

- 각종 연구 사업, 종교간 교류 사업, 한국의 종교 다원주의 홍보 사업, 기타 종교 평화 구현 국제 행사 기획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의 모태로 활용함

#### ■ 전통종교문화는 물론 근현대종교문화 사업도 개발

- 실태파악, 지원근거 마련(법률 제정), 시범사업 추진 등 단계적 추진

### 3. 문화 자원으로로서의 종교적 콘텐츠 발굴 및 활용

#### ■ 종교 평화 공원 조성 사업 추진

- 냉전과 갈등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에 종교적 가치 구현을 통해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 평화 공원을 조성함

- 생태, 평화, 종교 다원주의 등을 테마로 다양한 체험 시설 등을 구비해 향후 ‘세계 청소년 평화 축전’ 등 다채로운 국제 평화 행사의 공간으로 활용함
- 종교 문화 체험 및 순례 관련 사업 개발 및 지원
  - 한국의 다양한 종교 문화 유적 및 콘텐츠를 체험하는 종교 순례길 등 종교 문화 체험 사업 개발 및 확산함
  - 산티아고(Santiago) 순례길의 사례가 보여주듯, 종교 문화를 직접 체험하려는 수요는 국내외에 확산 중이며, 이를 사찰 등 한국의 다종교 문화 콘텐츠, 수려한 자연 경관, 종교적 내러티브를 결합한 형태로 개발함

#### 4. 종교적 가치의 사회적 구현 사업

- ‘종교와 삶의 지혜’ 프로그램 운영(대학생 대상)
  - 대학생을 대상으로 종교 일반, 주요 종교 전통, 종교의 의미, 바람직한 종교 생활 등 종교 전반에 대한 교양 강의 개설 및 운영함
  - 비교종교학 전공자가 전체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되, 강사진은 각 종단의 박사 학위 소지 종교인들을 적극 활용함
  - 종교인들의 대담 프로그램을 특강 형태로 추가해 종교 다원주의적 접근을 자연스럽게 시도함
- 한국의 종교 문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지원
  - 한국의 풍부한 종교 문화의 내용과 의미를 다큐멘터리 등 콘텐츠로 제작해 국내외에 보급함
  - 국문학, 종교학, 역사학 등 학계와 종교계를 ‘종교 문화 콘텐츠’로 연결해 다양한 소재 발굴 및 콘텐츠 제작 기초 자료 제공 등을 도모함
- 신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종교와 삶의 지혜’ 프로그램 운영
  - 종교 전통이 전해주는 삶의 지혜를 ‘도서관 지혜학교’ 등 문화기반 시설을 활용한 인문 프로그램에 접목해 대중 확산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 국민들 중에서 노후 여가 생활의 방안으로 종교활동을 고려하고 있는 비율

이 낮지 않고, 종교 생활은 삶의 의미 확인을 통해 노후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기 때문에 복지 차원의 정책 추진이 가능함

- 국내의 여러 종단 조직과 시설을 활용해, 종교인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로도 운영이 가능함

■ 남북 종교계 교류 지원

- 남북 종교계의 교류 사업 지원을 통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평화 정착을  
도모함
- ‘세계 종교 평화 축전’, ‘세계 청소년 종교 평화 대회’ 등의 공동 개최 추진  
이 가능함

■ 종교적 콘텐츠를 활용한 청소년 인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자비, 사랑 등의 종교적 가치와 명상 수행과 같은 종교의 자기 개발 콘텐츠를  
활용해 미래 사회에 부합한 청소년 인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도  
모할 수 있음
- 불교의 명상 수행을 포함해 여러 종단의 다양한 심신 수행법을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 등을 해소하는 콘텐츠로 개발해 보급함

## 5. 종교의 평화적 공존 모델의 가치 발굴 및 확산

■ 종립 학교 종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종교 평화 공존’ 사업 추진

- 전국 종립 학교의 종교 교사들의 상호 교류, 학술 세미나, 교육 사례 발표회  
등의 다양한 종교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함
- 종교 교사들의 타 종교 시설 방문 및 체험 행사 개최를 지원함
- ‘종교간 평화 공존 및 교류’를 주제로 한 종교 교사들의 교육 경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 생사 개최를 지원함
- 전국의 종교 교사들은 중고등학생을 일선에서 직접 지도하고 있는 전문가  
이자, 동시에 종교인이라는 점에서 각 종단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종교 심화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전국 종립 학교 종교 교사 및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 전통 이해 및 공존을 지향하는 심화형 재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함
  - 군목 등 군 종교 사제를 대상으로 한 종교 이해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함
  -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종교 교사 및 군목 등을 전국적인 조직으로 네트워크화를 추진함
- 다종교 문화 축제 개최 지원 및 종교 다원주의를 주제로 한 콘텐츠 제작
  - 종단이 연계해 추진하는 다종교 문화 축제의 개최를 범사회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함
  - 한국의 종교 다원주의의 유래, 역사적인 의미, 구체적 사례 등을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및 보급 추진함
- 종교의 평화 공존 이해를 위한 교육 교재 발간 및 확산
  - 한국의 종교 다원주의의 의미, 사례 등을 내용으로 한 교육 교재 발간을 추진함
  - 학위를 소지한 종교인과 비교종교학자들을 집필진으로 기획해, 교재가 종교계 및 대학에 쉽게 활용되는 방식을 추진함
  - 일반인, 직장인, 공무원 등 교육 교재 개선 및 발간함
- ‘세계 종교 평화 축전’ 개최 및 한국의 평화적 종교 공존 사례 홍보
  - 세계 종교인들이 모여 정치, 사회, 경제 분야의 긴장과 갈등 해소를 도모하는 ‘세계종교평화 축전’을 개최함
  - 국내 종단과의 협력을 통해 종교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적 행사를 기획해 개최하며, 분단의 상징인 DMZ와 같은 공간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남북 긴장 완화의 계기로도 활용함
  - 동 축전에서 종교 다원주의를 주제로 한 국제 학술 행사 및 포럼을 병행 개최해 한국의 종교 다원주의 모델을 홍보하고, 종교를 매개로 한 국제 평화 가치를 제고함
- 세계 청소년 종교평화 대회 개최
  - 종교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세계 청소년 종교평화 대

회를 DMZ 등 에서 개최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종교 다원주의와 국제 평화 필요성 이해의 디딤돌을 제공함

- 아울러 미래 세대에게 종교적 가치가 평화 구현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함
- 종교 평화 공원, 종교 박물관 등과 연계하며, 국내 종단과 협력해 추진 가능함
- 유사한 사례로 '프랑스 떼제 공동체'가 대표적임

## 6. 종교 문화 활동 지원 방안

※ 기존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기타 보조금과 중복을 지양하며 별도 종교기관 주관 문화활동 지원방안 마련

### ■ 종교 기관 문화공간 지원방안

- 종교시설의 지역주민 대상 공간 개방 및 활용 시 지원 방안을 제시함
- 생활문화, 문화동아리, 지역 문화예술 발표 및 활동 등의 공간으로 종교기관의 문화공간 활용 확대를 통해 지역문화 향유기회 및 접근성을 확보함
- 종교기관과 지역 주민의 접근성 높이고 상생하여 지역문화에 협력하는 기회를 마련함

### ■ 종교 기관 주관 문화 프로그램 지원방안

- 종교기관 주최 문화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종교/지역/문화예술 협력 기회를 마련함
- 종교기관 주최 예술, 생활문화, 동호회에 해당 종교 외 지역 주민 개방형 참여를 통해 운영 시 지원 방안을 마련함
- 문화다양성, 다문화, 생활문화, 문화예술교육 등의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함
- 청소년 예술인재 양성 및 육성 사업과 연계 지원 가능성 검토가 필요함
- 소외계층 및 어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 지원이 가능함

### ■ 종교 문화 콘텐츠 개발 지원

- 종교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 시 창작/제작/유통 지원 방안을 검토함

- 종교 관련 영상물(영화, 다큐멘터리 등), 공연물, 음악, 출판·인쇄물, 만화(웹 포함)·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 등 콘텐츠 개발을 지원함
- 종교활동 지원, 콘텐츠 인력양성 및 개발 지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종교 문화콘텐츠 박람회개최, 종교문화콘텐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시상  
을 추진함

※ 문화콘텐츠 개발 및 범 종교 홍보 효과 기대, 종교 문화콘텐츠 축제로 확대

- 종교 정기간행물 통합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개발 지원
- 남북문화교류에서의 종교사업 확대
  - 남북문화교류에서 평화와 공존, 통합의 종교의 가치를 활용하여 사업 확대

## 7. 종교 리터러시 확대 기반 마련

- 종교 이해 및 접근성 강화 플랫폼 구축
  - 전 국민이 문화로서 다양한 종교를 이해하고, 종교의 가치관을 공감 및 체험하며, 종교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종교현장을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종교문화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함
  - ※ 종교자료 및 영상 등을 수집/보관/관리하는 종교 라키비움의 기능 및 인력과 연계하여 운영
- 종교 라키비움 조성 및 운영
  - 라키비움은 도서관(Library), 자료관(Archive)과 박물관 (Museum)의 기능과 역할이 결합된 복합 문화시설임
  - 종교의 경우 기존에 자료와 역사를 보관하는 ‘자료관’, 일반 국민이 정보를 통해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도서관’과 주요 유산을 보존하고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이 결합하는 형태가 가장 적절한 분야임

- ※ 도서관은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 (도서관법)
- ※ 박물관 및 미술관은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移管)·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 종교 라키비움은 다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1. 주요 종교유산을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
2. 종교관련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을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
3. 종교관련 자료를 생산·분류·정리·이관(移管)·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전반업무 수행.
4. 종교관련 교육, 학습 및 기타 문화프로그램의 운영
5. 종교간 평화 및 공존을 위한 국내외의 다양한 교류 사업 기획 및 추진
6. 기획 및 운영 과정에 국내 종단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종교간 교류를 촉진

- 라키비움에서는 다종교 상황으로 인해 풍부한 종교 문화 콘텐츠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는 장점을 반영하고, 21세기 인류의 과제인 '평화 공존'의 정신을 보여줌.
- 한국의 다원주의적 종교 문화와 유서 깊은 종교사를 소재로 한 종교 문화 콘텐츠 전시 및 종교 다원주의 교육 등을 위한 시설로서 운영
- (종교를 넘어) 국민정신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치유, 통합 등 사업 개발 시행 및 캠페인 추진

---

## 참고문헌

### ■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자료집

- 고병철(2011), 「한국 종교정책의 진단과 과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제 64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2019), 2019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 김혜인·김연진(2018), 「2020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대구여성가족재단(2020), 「대구여성가족브리핑 제42호」.
- 문화체육관광부(2010), 『2009 종무행정백서』.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한국의 종교현황」.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국민여가 활동조사」.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KISTEP·KAIST(2016), 「10년후 대한민국 뉴노멀 시대의 성장전략」.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0), 「코로나19가 방송·미디어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종교문화연구원(2007), 「21세기 종무 정책의 기능강화와 발전방안연구」.
- 통계청(1995, 2005, 2015),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2019), 「2019년 사회조사결과」.
- 통계청(2020), 「2019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 한겨레경제연구소(2020), 「포스트 코로나시대 인식조사 결과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8), 「2018 문화예술교육 전문연수원 설립 및 운영 기본 구상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2018), 「사회갈등지수와 갈등비용 추정」.
- 한국행정연구원(2020),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 ParkHY, ParkWB, LeeSH, et al.(2020),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depression of survivors 12 months after the outbreak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in South Korea. BMC Public Health 24.

## ■ 웹사이트

- 경기도청,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관련 조사결과  
(<https://survey.gg.go.kr/app/cscenter/infoGrView.do?bbsSn=3&bbscttSn=26181>)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국가통계포털([kosis.kr/](http://kosis.kr/))
- 문화재청 국가무형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 서울미래유산 홈페이지(<http://futureheritage.seoul.go.kr>)
- 조이페스타 홈페이지  
(<https://joyfesta.kr/FestivalDetail.festa?festivalseq=1640>)
- 카톨릭영화제 홈페이지(<http://caff.kr/>)
- 코리안클릭(2020.03.27.) ‘코로나19’ 모바일 앱 이용행태 분석  
(<http://www.koreanclick.com/insights/newsletter.html?code=digitalnow>)
- 한국리서치(2020.05.06.) 코로나19 6차 인식조사(상황 인식, 언택트 사회 전망 등)  
(<https://hrcopinon.co.kr/archives/15498>)
- 한국리서치(2020.09.23.), 코로나19 16차 인식조사  
(<https://hrcopinon.co.kr/archives/16500>)
- MatthewBall.vc(2020.03.29.) The Impact of COVID-19 on Pay-TV and OTT Video

## ■ 신문기사

- 경북매일(2011.02.11.) “포항 종교계 상생·화합 다졌다”
- 굿뉴스(2014.10.16.) “낙원악가상가 문형만 장로 낙원동과 한국교회 음악은 운명공동체”
- 한겨레(2020.06.24.) “삶의 질보다 경제적 성취, 분배보다 성장에 방점”
- 한국경제(2020.06.15.) “방탄소년단 방방콘 90분간 250억 벌었다..세계최대 온라인 유료공연”
- BBC NEWS(2020.04.22.) “코로나19: 전 세계 봉쇄조치로 넷플릭스 가입자 1600만명 늘어”
- The New York Times(2020.03.17.) “Our New Historical Divide: B.C. and A.C. — the World Before Corona and the World After”

---

# ABSTRACT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Religious Administration in Response to Social Change**

The basic principles of the state's religious policy are declared in the Constitution as 'no discrimination due to religion', 'religious freedom' and 'disapproval of state religion and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 The central government is carrying out administrative tasks related to religion. Representatively, it is centered on the Religious Affairs Offi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Basically, it is carrying out tasks such as religious support,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other religions, and investigations on the status of religion. The websit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xpresses that the Religious Affairs Office is in charge of the religious administration and contributes to harmony among religions through support for cooperation and association activities between religions, development of religious and cultural contents, and support for cultural spatialization of religious facilities.

In religious activities, various areas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re involved, such as leisure activities, culture and arts education and experiences, and traditional culture experiences. Furthermore, it is linked to clubs and societies, and it can be viewed as a very complex area with parts belonging to the area of tourism/travel.

However, the current level of analysis,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religious activities is insufficient, making it difficult to develop appropriate policies and plans. It is necessary to promote policies such as 'development of religious and cultural contents' and 'support for cultural spatialization of religious facilities'

through research on religious activitie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o expand the domain of religious administration to various areas, not limited to supporting simple religious activities.

In addition, there is a demand for a new religious policy to respond to future changes. Changes in the existing policy environment are accelerating in 2020, and changes in the past foreseen in the past, such as a non-face-to-face society, a new normal societ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 low-growth society related to COVID-19, are progressing very rapidly.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irection for the new future of religious policy.

This study presents the mid- to long-term direction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By presenting the necessity of regular research, institutional conditions, and comprehensive plans, the direc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mid- to long-term policy is suggested. In addition, it suggests core tasks and suggests religious-related projects that can be implemented in the short term,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an affairs policy in consideration of changing society. In addition, cases and theories such as the intrinsic value of religion and the role and value of religion in society are reviewed and presented as the basis for promoting the above policy. The values derived through this can be the basis of religious administration.

### **Keywords**

Religious Administration, Social Change, Value of Religion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종무행정 방향연구



## 부록



## 【부록1】「국민통합·치유자문위원회」 회의 (“새로운 종무정책 방향 연구안”)

### □ 회의 개요

- 새로운 종무 정책을 위한 논의를 위해 회의를 개최함
  - 종무정책은 과거와는 다르게 시대변화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종무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종무행정 방향 연구」를 실시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자문회의를 추진함
  - 본 회의에서는 종교 관련 전문가들과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 향후 종무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표 1〉 회의 개요

일시	2020년 10월 28일(수)
장소	서울비즈센터 1회의실
안건	“새로운 종무정책 방향 연구안” 논의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종무실장, 강성태 종무1담당관, 권도현 종무2담당관, 백중현 개신교 담당 종무관, 이상효 불교 담당 종무관, 장우일 천주교 담당 종무관, 백두이 사무관, 구순희 주무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규원 선임연구위원, 손유진 위촉연구원
	서울대학교 성해영 교수
	서울대학교 김지현 교수
	동국대학교 조기룡 교수
	NCKK 권혁률 언론위원장
	카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변진홍 연구위원장
	한국문화기획평가연구소 정정숙 소장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이종관 교수(하이브리드미래문화연구소 소장)

## □ 안건 논의 내용

- 지금까지의 종무정책은 대국민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음.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종무정책은 대부분 종교 지원에 치우쳐 대국민서비스 부분을 놓치고 있음
  - 종무와 관련한 디지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각 종교가 가진 문화유산이 현대기술을 만나서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또한 구축되어야 함. 종교에 대한 정보, 종교별 문화유산에 관해 궁금할 때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콘텐츠와 플랫폼이 필요함
  - 해당 체계가 구축되어야 국민들이 종무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임
  - 이는 연구보고서 내용 중 라키비움과 연결하면 좋을 것임. 종교에 대한 자료를 찾고 연구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작용할 수 있음
  - 라키비움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상호작용하는 체계로 구축해야 함. 디지털 서비스는 플랫폼을 구축하면 구축된 플랫폼이 장기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함. 따라서 물리적인 공간과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이 기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온오프라인이 같이 구축되어야 함
  - 또한 해당 서비스는 디지털 지리정보 시스템이 기반이 되어야 함. 어떤 장소에 어떤 종교 시설과 성직자가 있는지 알리는 서비스 마련이 요구됨
  - 이와 같은 GIS 기반은 종교 관련 현황조사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종무행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만의 업무가 아니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과거에는 타 부처에서도 종무와 관련한 사안을 담당하였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에 집중되어 있음
  - 개별 종교에 대한 지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포괄적으로 종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임
  -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거버넌스가 필요함. 광역자치단체 차원 그리고 기초단체 차원에서도 종교와의 협력

을 통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종교가 힘을 모아서 국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 소수의 지자체에도 종무과가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과의 연계는 없음. 서로 소통하고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연구 보고서 내 통계를 살펴보면 종교에 대한 인식과 역할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종교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은 종교계가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함
- 종교기관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사회통합을 위해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임
- 현 종무관련 정책 사업 예산 항목들은 아직도 중단 지원 중심에 머물고 있기에 향후 미래적 과제 중심의 예산 사업 개발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임. 특히 종교의 사회통합기능 강화 쪽에 사업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에 앞서 종교에 대한 사회역할 기대가 올라가도록 만든 후에 이루어져야 함.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종교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를 회복해야 함
- 종교에 대한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종교 관련 언론의 역할이 중요함. 시대 변화에 따른 종교 자체 문제를 파악하고 연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종교 언론이 필요함.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 안에서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하며, 언론사의 종교담당 기자들이 이를 지적할 필요가 있음. 종교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기능, 내용들을 다루어줘야 함
- 또한 종교계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회 외부적인 문제인지 종교 계 내부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선방향을 설정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설문결과에 대한 내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현재 국내에는 종교인이 아닌 사람이 절반이상임. 또한 종교의 자기반성, 종교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때문에 종무 정책의 비전수립을 위해서는 종교와 사회의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함. 균형점을 찾는다면 방향성을 찾아나가야 함

- 종교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지표 개발 및 종교 관련 연구 강화가 요구됨
  - 기존에 관련 지표조사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음. 그러나 해당연구는 광범위하여 이를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함
  - 현재 종교 관련 민간 기관과 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종무 행정 및 정책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 종교 정책, 종교 갈등 등의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한국은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으며 포용력이 있는 국가임. 따라서 한국 종교계가 종교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60년대 쿠바 위기 이후 세계평화문제가 언급되었고 이후 세계종교자평화회의(WCRP) 그리고 아시아종교자평화회의(ACRP)가 만들어짐
  - 한국 종교계가 평화를 내면화하면서 세계평화, 아시아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할 필요가 있음
-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종교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해야 함
  - 거버넌스는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방향성을 찾는 협의 및 협치 구조임. 이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국회,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이 모여서 현재 종교와 관련한 문제들을 풀어 나가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부록2】 주요 사업 예산 추정

### □ 종교 라키비움

- 본 종교라키비움 (도서관, 자료관 및 박물관 복합 건축물)은 2010년 이후 건립된 4급지 박물관(국립나주박물관 및 국립익산박물관)의 평균 수준인 약 1만 m<sup>2</sup> 내외의 규모로 건립 가정

〈표 2〉 국립지방박물관 규모 비교

관명	개관 연도	시설현황(m <sup>2</sup> )							
		부지면적	연면적	전시	수장	교육	편의	사무 연구	기타 공용
경주	1945	135,547	28,183	6,247	8,389	1,167	378	2,756	9,246
광주	1978	82,993	15,128	3,470	1,890	1,965	126	1,300	6,377
전주	1990	64,808	13,268	3,703	1,376	1,109	227	1,174	5,679
대구	1994	101,094	15,189	2,644	3,216	1,746	174	867	6,542
부여	1945	61,429	14,483	4,329	1,287	2,349	69	1,166	5,283
공주	1946	70,119	12,554	2,166	1,257	762	-	854	7,515
진주	1984	17,773	9,564	4,329	1,262	783	264	512	2,414
청주	1987	67,062	10,705	3,718	1,409	1,242	380	1,260	2,696
김해	1998	53,555	16,784	3,622	2,871	1,179	357	1,781	6,974
제주	2001	55,579	9,489	1,966	1,113	702	104	282	5,322
춘천	2002	51,029	10,390	2,185	1,263	1,286	164	1,640	3,852
나주	2013	74,272	11,326	3,223	2,517	509	352	1,111	3,614
익산	2015	39,695	9,991	3,186	1,880	67	-	586	4,272
평균		67,304	13,619	3,445.23 (26.25%)	2,286.92 (15.47%)	1,143.54 (8.54%)	199.62 (1.52%)	1,176.08 (8.46%)	5,368.15 (39.77%)
4급 평균	전체	54,501	11,698	3,191.56	1,651.00	986.56	241.43	1,021.33	4,660.22
	'00 이후	55,144	10,299	2,640.00	1,693.25	641.00	206.67	904.75	4,265.00
	'10 이후	56,984	10,659	3,204.50 (30.06%)	2,198.50 (20.63%)	288.00 (2.70%)	176.00 (1.65%)	848.50 (7.96%)	3,943.00 (36.99%)

〈표 3〉 유사 박물관 사례

국립나주박물관	국립익산박물관
	
<p>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고분로 747  부지면적: 74,272㎡ / 건물 연면적: 11,326㎡  주요시설: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수장고, 기획전시실 등  소장자료: 소장유물 18,644점; 국보 2점</p>	<p>소재지: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362  부지면적: 39,695㎡ / 건물 연면적: 9,991㎡  주요시설: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 수장고, 기획전시실 등  소장자료: 소장유물 22,672점; 보물 9점</p>

- 예상 건립사업비: 예상 건립사업비는 위와 유사한 규모에서 현재 사업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국립충주박물관의 예산신청금액(450억원 수준)으로 추정 가능

〈표 4〉 종교 라키비움 예상 건립사업비 추정

구 분		연면적(㎡)	적용기준	공사비(원)	비고
공 사 비	건축공사비	10,705	3,022,773원/㎡	32,358,784,965	사례 평균 보정
	전시공사비	3,718	2,219,244원/㎡	8,251,149,192	국립익산박물관 사례 보정
	소계	-	-	40,609,934,157	
설계비		-	4.36%	1,770,593,129	
감리비		-	5.85%	2,375,681,148	
부대비		-	0.23%	93,402,849	
계		-	-	44,849,611,283	

#### □ 한국 종교 문화연구센터 건립 예산 추정

- 한국 종교문화연구센터의 경우 현재 기능 및 역할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기에 일반적으로 연구, 교육, 사무 등이 가능한 ‘연수원’의 사례를 비교하였음
  - 주요 연수원 사례에는 ‘삼성화재 고양연수원’, ‘IBK 기업은행 충주연수원’, ‘한라 인재개발원’, ‘하나 글로벌 인재개발원’이 있음



[그림 1] 국내 연수원 사례



〈삼성화재 고양연수원〉



〈IBK 기업은행 충주연수원〉



〈한라 인재개발원〉



〈하나 글로벌 인재개발원〉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8), 「2018 문화예술교육 전문연수원 설립 및 운영 기본구상 연구」

〈표 5〉 국내 주요 기업연수원의 시설 개요

구분	IBK 기업은행 충주연수원 (2011)	KB사천 연수원 (인재니움) (2011)	삼성화재 고양연수원 (2014)	한라 인재개발원 (2014)	하나글로벌 인재개발원 (예정)
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용인시	인천광역시
대지면적	99,585㎡ (30,177.4평)	98,145㎡ (29,741.0평)	73,567㎡ (22,293.0평)	20,236㎡ (6,132평)	246,240㎡ (74,618.0평)
건축면적	12,076㎡ (3,659.4평)	22,503㎡ (6,819.0평)	11,526㎡ (3,492.6평)	3,531㎡ (1,070평)	10,058㎡ (3,048.0평)
연면적	41,719㎡ (12,642평)	39,623㎡ (12,007평)	26,120㎡ (7,915평)	20,523㎡ (6,219평)	35,808㎡ (10,851평)
규 모	지하 2층 지상 5층	지하 1층 지상 5층	지하 1층 지상 4층	지하2층 지상4층	지하 1층 지상 4층
배치타입	분동형	통합형	통합형	통합형	분동형
운영형태	기업연수만 운영	기업연수 및 대여	기업연수 및 대여	기업연수 및 대여	기업연수만 운영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8), 「2018 문화예술교육 전문연수원 설립 및 운영 기본구상 연구」

〈표 6〉 국내 주요 기업연수원의 기능별 면적비 분석

숙소 비율 18% / 교육시설 비율 21% / 편의지원시설 비율 18%									
시설 평균 비율		18%	21%	10%	8%	43%			
1	2011년	IBK 기업은행 충주 연수원 (12,642평)	16.8% (2,123평)	21.1% (2,663평)	6.5% (817평)	7.6% (966평)	48% (6,073평)	1,644평	
2	2011년	KB 사천연수원 (인재나눔) (12,007평)	18.4% (2,213평)	17.4% (2,091평)	8.6% (1,037평)	11.2% (1,342평)	44.4% (5,324평)	2,745평	
3	2014년	삼성화재 고양연수원 (7,915평)	20.4% (1,611평)	22.6% (1,800평)	13.5% (1,065평)	10.5% (830평)	33.0% (2,609평)	1,050평	
4	2014년	한라 인재개발원 (6,219평)	17.5% (1,088평)	22.5% (1,4004평)	10.0% (622평)	5.0% (311평)	45.0% (1,799평)	1,225평	
5	예정	하나 글로벌 인재개발원 (10,851평)	18.8% (2,044평)	16.9% (1,834평)	6.9% (753평)	9.9% (1,078평)	47.5% (5,142평)	359평	
주차장 제외 전체 100% 기준									
<div> <span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0px; height:10px; background-color:orange;"></span> 숙소           <span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0px; height:10px; background-color:blue;"></span> 교육           <span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0px; height:10px; background-color:green;"></span> 후생           <span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0px; height:10px; background-color:yellow;"></span> 지원           <span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0px; height:10px; background-color:lightgray;"></span> 공용           <span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0px; height:10px; background-color:gray;"></span> 주차장         </div>									

#### ■ 예상 공간구성

- 위 준거시설의 영역별 면적비율을 감안하고, 문화예술교육전문연수원(ARTE)의 교육프로그램 수준을 적용할 때, 약 1만㎡ 규모의 시설이 도출됨<sup>35)</sup>

〈표 7〉 예상 공간구성

시설구분	면적(㎡)	비율(%)	비고
숙박시설	1,840	20	숙박인원은 100인/일 기준 2인1실 45실 기준, 다인실 2실 기준
교육시설	2,760	30	
지원 및 편의시설	920	10	
전용기능 면적 소계	5,520	60	
공용면적 소계	3,680	40	
면적 합계	9,200	100	지하주차장 조성시 면적 별도
지하주차장 면적	1,380		200㎡당 1대/총 46대 소요/대당 30㎡ 적용
총 연면적	10,580		

※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8)「2018 문화예술교육 전문연수원 설립 및 운영 기본구상 연구」

35) 민간 연수시설은 대부분 규모가 큰 상황이나, 시설의 운영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공간규모가 조정되어질 필요 있음. 본 계획에서는 운영프로그램의 수준을 ARTE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 예상 건립사업비

- 연면적 1만㎡를 기준으로 건립사업비를 산출할 경우, 280억원 수준의 비용 필요

〈표 8〉 한국종교문화연구센터 예상 건립사업비 추정

구분	단가	연면적	금액(원)
공사비	260만원	10,000㎡	26,000,000,000
구분	종별	대가요율	용역비(원)
설계비	설계비(2종 상급)	4.756	1,237,000,000
감리비	감리비(비상주감리/건축)	1.19	309,000,000
	감리비(비상주감리/기타부분)		92,820,000
	소계		1,638,820,000
구분		용역 및 수수료(원)	
각종 인증비	녹색건축물 인증		10,000,000
	에너지효율등급		5,000,000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35,000,000
	인권영향평가 인증		10,000,000
	소계		60,000,000
구분		금액(원)	
합계		27,699,000,000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8), 「2018 문화예술교육 전문연수원 설립 및 운영 기본구상 연구」



## 집필내역

---

### 연구책임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총괄, 1장, 2장, 3장, 4장, 5장

### 공동연구

성해영 서울대학교 교수: 2장 1절, 4장 3절, 5장 1절·2절

손유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위원: 2장 2절·3절, 3장 1절·2절·3절

##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중무행정 방향연구

---

발행인 김 대 관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0년 12월 18일

발행일 2020년 12월 18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SBN 978-89-6035-842-3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0.e39>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0.e39>

[www.kcti.re.kr](http://www.kcti.re.kr)

---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Religious Administration in Response to Social Change

---

Kim, Kyuwon

